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http://www.suna.or.kr

제 253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9년 4월 15일

[1]



(좌로부터 任志淳·洪性大·李丙俊동문) 커버스토리 4·5·6면

제1회 관악대상 수상자 탄생...축하합니다



주는 이도 기쁘고 받는 이도 즐거운 게 賞이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같이 수많은 수상자들이 신문의 인물동정란을 장식해 오고 있다.

서울대총동창회가 관악대상을 만들어 처음으로 李丙俊, 洪性大, 任志淳동문에게 참여·협력·영광상을 수여했다. 이들 세분들은 우리나라와 사회, 모교, 동창회에 남긴 공적으로 봐서 첫 수상자로 손색이 없음을 물론이다.

반갑고 잘된 일이다.

그러나 晩時之歎의 감을 지울 수는 없다. 벌써 거의 모든 대학동창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고교동창회까지 비슷한 시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 않은가. 또 서울대가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로 본다

면 시상규모가 약소한 것도 사실이다. 꼭 부상에 권위가 동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표창장과 메달만으로는 뭔가 허전한 구석이 남는다.

이제 시상이 끝났으니 그런 허전함은 전국에 있는 동문들의 격려와 박수로 메울 수밖에 없지만 2회부터

조출한 관악대상

는 우선 수상자만이라도 늘려 보는 게 어떨까 싶다. 동창회와 모교발전에 기여한 점이 평가되는 참여·협력상은 한명씩으로 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공익과 국가발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영광상은 얘기가 다르다. 수십만명에 이르는 동문규모나 해방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와 사회를 주도해 오다시피한

솔한 인물군을 감안하면 한명만으론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학계, 정·관계, 사회일반 등 분야별로 나눠도 아마 당분간은 해갈이 될 수 없을 듯하다.

더욱이 이런 시상제도가 너무 뒤늦게 마련돼 그동안 쌓여온 功績 인사들만 처리하려 해도 얼마간의 세월이 흐를지 모를 일 아닌가.

그렇다고 정부에서 훈장을 주듯이 수백명씩 시상하는 일은 상의 권위를 위해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최소한 영광상만은 3~4개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어쨌든 뒤늦게라도 관악대상을 제정해준 동창회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 이 시상제도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동문들에게 조그만 격려가 되고 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뿐이다. (萬)



드리나무광장



丘月煥 (前 연합통신 상무)

이다. 경제부총리가 못 막았으면 재무장관이 막았을 것이고, 재무장관이 못 막았으면 한국은행 총재가 막았을 것이고, 그것도 안되면 그 부처의 국장-과장-계장이라도 막을 내걸고 막았을 것이다.

나라가 부도위기를 맞을 때까지 그 많은 경제관료들, 경제학자들, 경제연구소 석학들, 국정을 감시·감독하는 정치인들... 등등 다 뭉치고 있었다. 여기서는 언론도 면책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IMF가 터진 뒤 자기 신문에다가 경제부 기자들의 5가지 죄를 반성했을 때 참으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선진국이나 된 듯이 과소비를 부추긴 「환상유포죄」, 관리들 말을 여과없이 받아 적은 「단순중계죄」,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파고들지 않은 「진상외면죄」 그리고 「대안부재죄」와 「관찰소홀죄」가 그것이다. 언론이 IMF국난 직전 제구실을 못한 것도 통틀어 보면 「편하게」

지내려는 타성, 여기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프로의식의 빈곤이 아닌가 한다.

지금 IMF극복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투입되고 있고 언제가는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겠지만 진정한 프로의식, 匠人정신이 우리의 가치관과 미덕으로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또다른 국난을 자초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랴.

(본보 논설위원)

프로의식이 절실하다

최근 한일어업협정 파동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쌍끌이」라는 어업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생소한 어업이 이처럼 광범하게 알려지게 된 이면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또한편으로는 희극적이다. 수많은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극적이고 그 이면에는 담당부처의 사무관이 중요한 시기에 교체되는 바람에 협상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희극적인 면이 있다고 하겠다.

아니 사무관이 바뀐다고 그런 사고가 생겼다니 말이 되는가.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IMF를 막지 못한 원초적 결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꽤 오래전의 일이다. 어떤 모임에서 카센터에 있다는 사람이 「자동차 고치는 데는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어 왔지만 이제는 손을 놓고 애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는 이제는 자동차 고치는 것과 같은 험한 일은 하지 않고 아래 사람들 감독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짐짓 자랑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편하게 지내려는 우리의 직업관, 생활관은 슬한 병무비리를 낳게 하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안전사고들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미증유의 흑독한 IMF고통까지 초래한 것이 아닌가. 책임을 맡은 관료나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부지게 프로의식을 발휘했다면 그렇게 쉽게 구멍이 뚫리지는 않았을 것

통일 대비한 식량정책 세워야

金光鎬(65년 農大卒)건국대 교수

동문칼럼

얼마전 TV에서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보여주는 특집이 방영된 일이 있다. 꽃제비라 불리는 10세 전후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을 줍기 위하여 질척거리는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는 모습, 그 중 한 아이가 진흙바닥에 떨어진 국수 부스러기를 재빨리 주어 먹던 모습, 5세 정도의 어린이가 시궁창가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 먹으려다 찾고 있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40~50년전의 우리나라 사정을 머리에 떠올렸다.

북한의 굶주린 꽃제비들

그랬다. 그때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는 이름이 있었다. 한 시인은 「하늘 빛 아직은 시퍼렇게 살아/ 아해 앞서 태질하는 속 뜻 알길 없어/ 움추려 울고 있는 우리 흙손들(중략) 힘겨워 오르는 자리 보릿고개/ 고개마다 흙패인 침뿌리들/ 갈갈이 찢기운 나뭇껍질들/ 산천은 마냥 눈감아 외면하고(후략)」라며 그때의 아픔을 시 구절로 씻어내고 있다. 그 보릿고개의 망령이 4~5년 전부터 북한 땅에 나타난 것이다.

인구 1인당 국토면적 또는 1인당 농경지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천천만고 끝에 이룩한 녹색혁명에 의하여 70년대 중반 이후 쌀을 자급하게 되었고, 쌀 이외의 부족한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여력을 갖게 된 것도 80년대 중반부터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는 그동안 겪어왔던 보릿고개에 대한 한풀이라도 하듯 온갖 것을 양껏 먹어치웠다. 그

리고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70년에 비해 97년에는 반으로 줄었다.

북한사회에 바로 우리의 혈육이 살고 있고, TV에 비쳐진 꽃제비의 배고픔을 바로 우리의 아픔으로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의 식량정책은 크게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20여년간의 한풀이식 식품소비 행태, 무분별한 농지의 타 용도로의 이용, 그리고 식량생산 축소정책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북한동포를 돕기는 커녕 우리의 식량사정도 크게 불안해질 것이다.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도 잘못된 식량정책의 과실 누적,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그리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겹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풀이식 소비행태 바꾸자

정부는 우리의 자연·사회·경제사정을 고려한 검소한 식품소비를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를 뚜렷이 해야하며 이를 위한 농지이용 및 기술개발계획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식량생산과 소비문제가 바로 자신의 일임을 자각하여 한뼉의 농지와 한톨의 식량도 소중하게 여기는 농심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세계적인 식량파동 하에서도 다시는 이 땅에 보릿고개나 꽃제비와 같은 우리의 어린이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부순례

관악무역인회(관무회)

회원 1천2백50명,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

글: 金閔鍾(71년 藥大卒·마성상사 대표)회장



金閔鍾회장

무회 회장인 徐廷煥(64년 工大卒·테크노랜드)동문을 중심으로 누구라 할 것 없이 동문 전원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表동문을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제13대 회장으로 당선

시킨 바 있다.

또한 이번 14대에는 金相男(70년 商大卒·코리아세일즈코퍼레이션)동문과 李杰(74년 文理大卒·동도트레이닝)동문이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부회장직을 맡아 열심히 뛰고 있다.

관무회는 지난 98년 9월부터 필자가 제2대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이 임원진을 구성하여 새천년을 향한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 관무회는 서울대총동창회의 후원하에 회원명부 발간을 준비 중이며, 이어 대대적인 발간기념회 및 학술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등산대회와 골프, 바둑대회 등을 준비 중이며 특히 바둑대회 중 후반기에 한번은 협회 산하의 타고 동창회도 초빙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인이 「독불장군」이 아닌 「참여」속에 상호 「협력」을 하고 모두 같이 「영광」을 나누어 관무회뿐이 아닌 한국무역대리점협회 발전에도 기여하

한국무역대리점협회(AFTAK: Association of Foreign Trading Agents of Korea)는 우리나라 총수입량의 85%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과 연계해 수출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관악무역인회(약칭 冠貿會)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1만3천여개 회원사중 약 10%에 해당하는 1천2백50여명의 서울대인이 최고 경영인으로 있는 회원사로, 지난 1997년 1월에 4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특히 관무회는 서울대총동창회 산하의 15대 국회 관악회와 ROTC동문회에 이어 세 번째 직능단체라는데 더욱 뜻이 있다고 하겠다.

한국무역대리점협회는 현재 40여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이에 우리 서울대인이 음양으로 협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무역발전에도 중요한 일익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대인이 한번도 협회 회장을 역임하지 않아 섭섭하던 중 表相基(65년 工大卒·상지상사)동문이 뜻을 세워 회장 출마를 선언하자 초대 관

고자 함이다. 또한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도 연차적으로 모금할 예정이다.

현재 관무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명예 회장: 徐廷煥(64년 師大卒·테크노랜드), 회장: 金閔鍾(71년 藥大卒·마성상사), 고문 단장: 表相基(65년 工大卒·상지상사), 수석부회장: 金相男(70년 商大卒·코리아세일즈코퍼레이션), 부회장: 柳東林(72년 工大卒·두루무역)·李杰(74년 文理大卒·동도트레이닝)·曹章鉉(73년 工大卒·유니스탄다드)·徐應源(78년 農大卒·동원과학), 총무 및 수석간사: 黃殷植(77년 工大卒·재우전자), 재무간사: 洪性漢(80년 藥大卒·백산메디텍)



97년 1월 관무회 창립 총회

모임 採訪

조소와 동문들의 「어느 조각 모임」 회칙없이 운영·연1회 테마전 가져

조각이란 자신의 독특한 성격이나 인품, 생각, 이념 등을 깊이 있는 수양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다듬는 외로운 작업이다.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관훈갤러리에서 열린 「분단-자아·사회·재료」展은 요즘 유행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조각의 본질들을 추스려낸 듯한 산뜻함으로 시선을 모았다. 「어느 조각 모임」이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 참가작가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모교 미대 조소과 출신이라는 점과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지향하며, 특정한 이름으로 묶이거나 지칭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처음 모임을 시작한 것은 1990년 12월, 裴馨京·申鉉重·李成道 동문 등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자 뭉쳤다.

모임 초기에 적당한 명칭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어느 조각 모임 앞」이라고 쓰여진 곁봉

투를 보고 모두들 「옳지 바로 이거야!」라고 외쳤다고 한다. 정해진 틀속에 구속되거나 얽매어 정형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모임의 성격을 잘 나타낸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이후 매년 1회 전시회를 열고, 3~4차례 서로의 작업장도 방문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어느 조각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개성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관이나 회칙이 없이 서로의 믿음만으로 이제까지 유지된 것도 신기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니 중요한 이견이나 일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아야 하는 등 시간이 낭비될 때도 있지만 그때 그때마다 융통성있게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한 형식이 총무 일을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보는 것인데 총무를 맡은 회원의 성격에 따라 매년 모임의 표정이 변하는 것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올해 총무를 맡아 전시회와 세미나를 무사히 마친 趙柄燮(85년卒·강원대 강사)동문의 말처럼 「어느 조각 모임」의 회원들은 서로의 인품과 정신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받고자하는 믿음 속에서 만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총 여섯번의 전시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질책해 온 이들은 특히 4회부터 전시실 하나를 회원 한 명에게 맡기는 특별 개

마련해왔다. 또한 올해는 테마전을 기획, 「분단」이라는 화두를 회원들이 다함께 풀어감으로써 자칫 나태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모임을 새롭게 변신시켰다.

「어느 조각 모임」의 회원들은 앞으로 지방 전시회 및 심포지엄 등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한다.

30, 40대 중견 조각가 18명으로 구성된 「어느 조각 모임」의 회원으로는 金昌世·裴馨京·俞香淑·申鉉重·李成道·趙載妍·金世鎰·張大日·趙柄燮·高明根·金鍾九·都學會·李東庸·金浩龍·曹廷和·李基七·劉泳浩·尹種甲동문 등이 있다. (美)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趙載妍·李成道·裴馨京·金世鎰·都學會·金浩龍·尹種甲·趙柄燮·李東庸·張大日·曹廷和동문

건강을 지킵시다

전립선 비대증

郭大熙(60년 醫大卒) 비뇨기과원장



남성들의 대부분은 성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무상으로 제 공되는 前立腺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다.

시원하게 내뿜으로서 만끽하는 사정의 쾌감, 그리고 실수없이 달성되는 생식기능, 여성처럼 방광염이 빈발하지 않는다는 이점은 모두 전립선이 있으므로 달성되는 소득인 것이다. 즉 정액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산되며, 전립선액 속의 果糖은 에너지의 자체 생산능력이 없는 정자에게 游泳運動에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 또한 枸橼酸과 亞鉛이 가진 훌륭한 살균력 덕택으로 요도로부터의 상행성 감염을 막아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고마운 전립선도 50대에 접어들면 차츰 그 사이즈가 불필요하게 커지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를 일으킨다.

前立腺肥大症이 바로 그것인데 60대에 60%, 70대에 70%라는 높은 발병률로 남성들을 괴롭힌다. 이 병의 시발이 40대 후반에서 출발하므로 이 이후의 연령군을 통틀어서 「전립선 세대」라고 부른다.

중년 이후 排尿회수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며 특히 야간배뇨회수가 2회 이상 증가되면서 오줌을 당장 바지에 쌀 것같은 尿急증상이 있고 배뇨시간이 길어지며 오줌줄기가 가늘어지면서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개운치 않은 尿後重 증세가 있으면 일단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하고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비대증이 좀더 진전되면 오줌은

더욱 자주 마렵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예전처럼 머뭇거릴 여유가 없을 만큼 다급해져서 바지에 오줌을 싸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마저 생긴다.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안쪽에서 진행되는 나쁜 증세의 하나는 배뇨후에도 방광 속에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오줌이 남아있는 殘尿증세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는 내과적, 외과적 두 가지 치료법이 있다. 좁아든 요도를 확장하는 교감신경遮斷劑와 더불어 남성호르몬 표적기판인 전립선을 남성호르몬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5-알파還元酵素」차단제의 병용으로 커진 전립선을 작게 만들 수 있고 대부분의 초기 환자들은 이런 약물요법만으로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것을 본다. 단 약물요법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요도확장이나 요도에 버팀목을 집어넣는 소위 stent 삽입, 또는 전립선절제술 등 적극적인 치료법이 동원된다. <광대희비뇨기과의원:540-6363>

추억의窓

쌀뜨물로 세수하며 받던 간호실습 책·걸상 없던 좁은 강의실 그리워

鄭秉錫(55년 看護大卒) 방주병원 기획관리실장

필자는 6·25전쟁이 발발하여 서울대학교가 부산으로 피난 온 시절인 1952년 3월에 모교에 입학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동의 낡은 건물 1층이 당시 기숙사였으며, 그곳 2층 건물이 학교였다. 강의실에는 책, 걸상 등도 없었고 교과서도 없었다. 오직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필기로 재빨리 기록해야만 했다.

뚝자리를 바닥에 깔고 수업을 받던 당시 우리들은 좁은 강의실에 많은 수의 학생들로 마치 콩나물 시루 같았고, 다리조차 펼 수가 없어 발이 항상 저려왔다. 또한 공중에는 비행기가 연막소독을 자주 실시해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특히 당시 기숙사의 세끼 식사는 콩보리밥에 고춧가루를 간장에 풀어 반 숟가락씩 밥에 올려 놓았고 항상 콩나물국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밥도 맛있게 먹었고, 없어서 못 먹을 지경이었다.

점심식사후 가장 졸리던 시간이 세균학 강의 시간이었다. 교수님의 느릿느릿한 음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졸음을 참지 못했으며, 한때는 대다수가 졸아 크게 야단을 맞기도 했다.

개인위생을 강의하시던 홍석기교수님은 매우 실력있는 총각 교수님으로 학생들에게 대인기셨다. 특히 강의하신 후 즉석해서 O·X로 치던 시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때 시절은 주관식 시험이었다.

우리들은 엄격한 기숙사 생활에다 외출도 1주일에 두번이었다. 수요일 오후와 주일날 하루였다. 매일 새벽 4시반에 예비종을 쳤으며 5시까지 기상하여 아침밥은 6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취침시간은 9시였다. 학우들 중에는 양초를 가득 사가지고 트렁크 안에다 세워놓고 밤새껏 공부하는 이도 있었다.

당시는 세수할 물이 없어 쌀뜨물로(강릉으로

만든 양철대야를 사용했음) 세수를 했으며, 추운 겨울날 군부대에 물을 길러 갔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기도 하였다.

입학한 지 6개월만에 한 학기가 지난 후 실습복을 받고 단체 기념사진을 송도 언덕 층층대에서 촬영했으며, 1년이 지난 후의 재관식 단체 기념사진도 송도 언덕 가교사에서 촬영했다.

당시 우리들은 여름방학때에도 실습을 했다. 특히 환자들의 신진대사 측정중 상처치료, 검사물체취, 투약, 식사 그외에도 힘든 일은 거의 학생들의 몫이었다.

그렇게 실습을 마치고 걸어서 기숙사에 돌아온 우리들의 입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렇게 외쳐대면 다정다감 하시던 李貴香학장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며 『고집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오니 모든 고생을 참아라. 6·25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산가족들이 많은데 살아남은 우리들은 덤으로 받은 생명이라 귀하고 귀하므로 죽은 사람들의 몫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격려하시는 말씀에 우리들은 또 새 힘을 얻어 그 괴로운 나날들을 후회없이 지낼 수 있었다.



좌로부터 白貴淑·金春子동문, 필자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지난 3월 19일 열린 동창회 창립 30주년 정기총회에서 3명의 동문이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을 수상했다. 이에 그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간략한 공적사항과 프로필을 소개한다.

참여상 李丙俊 부산파이프 아메리카 회장



59년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李丙俊동문은 76년 미국으로 건너가 부산파이프 아메리카를 설립했으며 86년부터 88년까지 남가주지부 상대동창회장 재임시에는 동창회보 「향상림」을 창간하여 동문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어 94년에는 남가주지부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각 단과대학별로 가져온 동창회 모임을 전체 모임으로 유도하여 하나로 묶는데 기여했다.

92년부터 4년간 나성 상사지사 협의회장 역임시에는 미국 최초의 동포 연방하원인 김창준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아 전례없는 규모로 동포들의 지원을 모아

재미 동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李동문은 95년부터 97년까지 미주지역 서울대동창회 19개 지부와 캐나다 밴쿠버·온타리오지부를 포함한 21개 지부를 총괄하는 재미서울대동창회 제3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재미동창회보(매월 7천부)를 발간하여 동문들에게 서울대와 미주지역 동문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동창회장 재임중에는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과학기술, 의료 분야 등의 동문 6천여명을 조사하여 국내 관련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9백90

면에 달하는 회원명부(DIRECTORY)를 발간, 배포했다.

한편 李동문은 62년부터 현재까지 36년간 「부산파이프」라는 중소기업의 기획책임자로서 국제시장에 자사제품 판로를 개척함은 물론 미국현지에서 조립 양산 판매시설까지 확장,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음은 물론 세계무대에 우뚝 선 강관업체로 성장시킴으로써 성공한 기업인의 표상으로 서울대인의 명예를 드높였다.

현재 본회 부회장, 재미동창회 명예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李동문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제1회 수상자로 이 사람을 택한 것은 집을 떠난 자식이 늘 잘 되기를 기도하는 따뜻한 친정 부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 한 사람의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해외동문 모두에게 주는 격려의 채찍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들 자존심의 핵심인 모교가 선진국의 우수 대학들 못지않게 동창회와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산업과 학문의 협동이 잘 이루어져 조국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는 대학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력상 洪性大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골프 경기후 행운상을 받고도 상이라 해서 무척 기뻐는데 오늘 최초로 서울대 전 동문들이 뜻을 모아 주는 관악대상을 받게 되어 가슴 벅차고 영광스럽습니다』

「수학의 定石」 저자로 널리 알려진 洪性大동문은 63년 문리과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72년 도서출판 「成志社」, 76년 월간 「數學世界」를 창립했다.

洪동문은 79년 재단법인 명봉재단(명봉도서관), 80년 학교법인象山학원(상산고교)을 설립, 육영사업과 장학사업을 통해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사학법인연합회 고문, 사단법인 한국사립 중·

고교 법인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洪동문은 97년 대한수학회의 서적, 잡지, 학술지 제작과 학회 사무실 전산화 등에 재정적 지원 및 수학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수학회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솔직히 저는 문리대 재학시절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잠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모교는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 자녀 셋을 모교가 훌륭하게 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남성중·고교 총동창회장, 수학과 동창회장, 모교 기성회 이사·부회장을 역임한 洪동문은 그동안 부유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교 발전기금으로 3억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연구소에 1억원의 기금을 쾌척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8년 40여억원을 출연하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내에 건립한象山數學科學館을 개관함으로써 국내 기초과학, 특히 수리과학 분야의 발전에 공헌했다.

국내 최초의 수리과학전문 도서관을 비롯 수학과연구소, 계산통계연구소, 이론물리연구소가 들어선 상산수리과학관은 1천1백여평 규모의 최신건물로서 최첨단 컴퓨터 설비와 방음시설외에도 세미나실 10여개와 외국석학들이 세미나 기간동안 머무르며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15개가 마련돼 있다.

洪동문은 96년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98년 본회 부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서울대총동창회 特志장학금으로 3억원을 출연, 매학기 모교 재학생에게 「洪性大 특지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모교 지원과 동창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洪동문은 수상 소감을 통해 「그동안 돈이 꼭 필요한 곳이거나 쓰고 싶은 곳에는 미련없이 쓰자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며 그렇게 쓰고 나면 언제나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영광상 任志淳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任志淳동문은 70년 예비고사 전국수석과 모교 수석 입학의 영광을 누린 수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학당시 뿐만 아니라 강단에 서서도 경실련, 모교 교수 모임인 사회정의연구실천모임의 이공계 총무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참여적 지식인으로 서울대인의 모범이 되어왔다.

74년 문리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任동문은 물리학 분야 석학들의 정규코스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공대, 벨연구소 등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어깨를 견주며 학술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버클리대학에서 연구한 고체의 전자구조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인용 회수가 7백회에 달하고 있으며 영국의 권위있는 과학 주간지 「Nature」誌에 실린 탄소 나노튜브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반도체 분야의 혁명적인 사건으로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任동문은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면 1기가 디램에 비해 회로폭이 1백분의 1에 불과한 회로를 만들 수 있어 반도체의 집적도를 1만배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의 학문적 자질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세계 권위지의 논문인용 편수를 보더라도 任동문은 모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석학으로서 노벨상 후보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86년 모교에 부임하여 이론물리센터 고체물리이론 실장,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任동문은 LG반도체와 삼성전자 등 첨단 국가기간산업 기업의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첨단 이론의 실용화와 산학협동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95년 제5회 「한국과학상(물리분야)」을 수상한 바 있는 任교수는 98년 한국과학기술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과학계에 21세기를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서울대인의 모범이 되어왔다.

任동문은 수상 소감을 통해 「IMF관리 체제이후에도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기 위해 저의 전공인 반도체분야를 살려 기업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제가 배운 지식을 환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분들이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동창회의 일원이 될 후배들을 훌륭히 키워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창립 30주년 총회에서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李丙俊·洪性大·任志淳동문 수상, 「비전 플랜」도 확정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3월 19일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겸 창립 30주년 기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尹天柱·權彝赫·趙完圭·鮮于仲皓전임총장, 李基俊총장, 禹鍾天대학원장 등 보직교수 및

동문 3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金在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몇 해 동안 땀을 들여가면서 총동창회 발전 30주년에 즈음하여 시작한 冠岳大賞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더욱 권위있고 영광된 시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基俊총장은 인사말에서 『서울대학교가 국가와 민족의 상징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우리의 혼이 담긴 연구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서울대인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에 덧붙여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 부문에 李丙俊(59년 商大卒·부산아미프 아메리카 회장)재미동창회 명예회장, 협력 부문에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본회 부회장, 영광 부문에 任志淳(74년 文理大卒)모교 물리학과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 프로필 4면 참조>

權彝赫전임총장은 신입회원 환영사를 통해 『언제나 상대를 알고 상대를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달라』고 당부했으며 사대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한 金弘珍동문은 답사를 통해 『겨레와 민족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말에 담긴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앞서간 선배들의 당당한 삶에 견줄 수 있는 길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안건 심의를 통해 1998년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李基雄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모교 禹鍾天대학원장의 건배 제의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우수지부 표창을 통해 해외지부 부문은 남가주지부(회장 吳興祚)·일본지부(회장 奉光玉)·밴쿠버지부(회장 崔靑一), 지방지부 부문은 부천지부(회장 朴敬鎬)·군산지부(회장 金吉俊), 직장지부 부문은 배화여고지부(회장 林承龍)·대한생명지부(회장 曹鎬鉉)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언어학과(회장 金光植)와 치대22회(회장 文福剛)가 우수 科·期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단과대학(원)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鄭哲圭 前 공대동창회장, 朴振煥 前 농대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지난 3월 15일 지병으로 별세한 故 尹志炳 前 수의대동창회장을 대신해 李佑幸수의대동창회장이 공로패를 대리 수상했다.

이날 총회에서 鄭星朝(70년 音大卒·KBS관현악단장)동문이 재즈 연주를 통해 「Autumn Leaves」, 「Body and Soul」 등을 선보였으며 金鉉淑(83년 音大卒)동문이 오빠 金相喆(86년 音大卒)동문의 장고 반주에 맞



鄭星朝동문



全瓊玉동문



金鉉淑동문(左)과 金相喆동문

춰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가시버시 사랑」 등의 가야금 병창을 선사했다.

또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동덕여대에서 실용음악을 강의하고 있는 全瓊玉(86년 音大卒)동문이 「누가 우리들 추운 가슴에」를 불러 참석한 동문들의 열띤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동문들에게는 기념품(지갑, 탁상시계)을 제작, 배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본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2-111 VISION PLAN」을 확정했다.

<별표 참조>

본회는 「2002-111 VISION PLAN」을 통해 오는 2002년까지 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재정안정을 기하고 동창회보는 10만부를 발행하며, 모교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수 1%에 해당하는 재학생에 장학금을 지급, 모교 지원의 폭을 증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창회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2002-111 VISION PLAN」의 수행에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 <變>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항목					
기금 총액	58억원	67억원	77억원	88억원	100억원
회보 발행	8만3천부	8만7천부	9만1천부	9만6천부	10만부
장학금 (재학생 %)	0.7%	0.75%	0.85%	0.92%	1.0%

상임이사회

동창회 예산·관악회 결산 의결

본회는 지난 3월19일 정기총회에 앞서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장, 지방지부동창회장, 동창회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제139차 이사회 및 재단법인 관악회 제7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1999년 동창회 예산안과 1998년 재단법인 관악회 결산을 심의, 의결했으며 1998년 동창회 결산을 심의하고 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朴英俊감사의 재단법인 관악회 감사보고에 이어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金在淳회장(右)이 우수 지부를 표창했다.



鮮于仲皓전임총장(右)이 우수 과·기를 표창했다.



李聖秀부회장(右)이 유공 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冠岳大賞 운영위원회

관악대상 수상자 만장일치 선정

기타 후보자는 차후 심사에 포함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3월 11일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金在淳회장을 비롯해 당연직 운영위원인 鄭宗澤상임부회장·李世震사무총장, 선임 운영위원 24명 중에 白文基(50년 美大卒)관악회 이사·林光洙(52년 工大卒)공대동창회장·李南洙(53년 音大卒)음대동창회장·宋斗灝(56년 醫大卒)·韓斗鎭(56년 醫大卒)본회 부회장·尹勤煥(54년 農大卒)농대동창회장, 崔泰祥(57년 師大卒)사대동창회장·朴世熙(59년 文理大卒)회보 논설위원·金讚淑(60년 齒大卒)치대동창회장·金熙中(63년 藥大卒)대한약사회장·崔秉烈(64년 法大卒)본회 부회장·李炯均(64년 文理大卒)회보 논설위원·金一燮(69년 商大卒)관악회 이사·姜光夏(71년 商大卒)모교 기획실장과 楊銀淑(54년 看護大卒)간호대동창회장을 대신하여 鄭蓮江(63년 看護大卒)간호대동창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동창회보 99년 1·2월호를 통해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 부문의 관악대상 후보 추천을 의뢰했으며 회장단을 비롯해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해외·지방 지부, 모교에 후보 추천

의뢰공문을 발송하여 99년 2월 말까지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했다. 2월 28일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참여 부문에 1개 지부·동문 6명, 협력 부문에 동문 11명, 영광 부문에 동문 9명, 부문 구별없이 1개 단체·동문 4명을 추천, 총 1개 지부·1개 단체·동문 29명(중복 1명 포함)을 제1회 관악대상 후보자로 추천받았다.

이에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시간 후보자들을 검토한 끝에 참여 부문에 李丙俊 재미서울대동창회 명예회장, 협력 부문에 洪性大 상산학원 이사장, 영광 부문에 모교 자연대 물리학과 任志淳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제1회 시상인 관계로 다재다사의 훌륭한 동문과 단체들이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수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수상에서 탈락한 동문들에게는 권위있는 시상제도의 예에 비추어 매년 후보자 선정시 계속 후보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제2회 시상부터는 후보자의 공적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등 심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천서 접수 기일을 앞당길 예정이다. 더불어 운영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 규정의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

참여 부문: 시카고 지부, 金在淳(51년 商大卒)본회 회장, 白承權(57년 師大卒)前부천여고 교장, 李興鍾(58년 師大卒)예일 여실 교사, 韓圭晉(60년 農大卒)前밴쿠버지부 동창회장, 李燦河(67년 經大院卒)신한회계법인 회장.

협력 부문: 李基億(47년 文理大卒)前시카고지부 동창회장, 李聖秀(52년 師大卒)한국정책평가연구회 회장, 徐廷和(55년 法大卒)국회의원, 故 尹志炳(58년 獸醫大卒)중앙가축전염병연

구소 회장, 尹明老(60년 美大卒)모교 미대 교수, 姜敏求(62년 行大院卒)유성개발 회장, 柳東星(63년 工大卒)캐나다 국방부 군수품질검수관, 金興植(63년 藥大卒)前경기 약사회 의장, 朴根植(68년 農大卒)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장, 鄭八道(AIP 1기)최고산업전략과정 동창회장.

영광 부문: 金賢奎(47년 醫大卒)前시카고지부 동창회장, 金洛律(53년 醫大卒)前부천지부 동창회장, 趙亮來(56년 文理大卒)美알콘국립연구소 부소장,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대학 학장,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광역시회장, 表相基(65년 工大卒)前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金泓殖(71년 經大院卒)금복주 회장, 鄭夢準(75년 商大卒)대한축구협회장,

구별 없는 부문: 서울대병원 간호부, 李鍾祿(47년 文理大卒)군장대학 학장, 姜錫圭(50년 工大卒)호서대 총장, 李吉女(57년 醫大卒)김병원 이사장,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광역시회장. (變)

「관악홀 의자실명제」 동문 호응 만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는 지난 95년 8월 孫京植(61년 法大卒·제일제당 회장) 동문이 출연한 5천만원으로 동창회관 5층 관악홀 실내 도장과 전등·커튼 교체 등 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며 姜晉求(57년 工大卒·삼성전기 회장)동문으로부터 음향기기를 협찬받아 새롭게 단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95년 9월부터 동창회관 관악홀을 보다 나은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 동문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출연받아 노후된 접의자를 3백석의 고급 의자로 교체,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 및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지난 3월 13일 李吉女(57년 醫大卒·김병원 이사장·13좌)의 대동창회장, 金貞植(56년 工大卒·대덕전자 회장·12좌)동문, 李燦河(67년 經大院卒·신한회계법인 회장·10좌)동문, 洪思穆(52년 商大卒·남서울관세사 대표·6좌)동문, 俞東濟(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6좌)동문, 河仁瓊(70년 文理大卒·서광 회장·5좌)동문, 명경희(5좌)를 비롯하여 동문 2백18명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3백석의 관악홀 의자 실명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참여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참여한 동문 명단) (가나다순)

강대순 姜萬洙(69년 法大卒) 姜敏求(62년 行大院卒) 姜秉澈(서울대 경제학부) 康潤杰(57

년 工大卒) 姜烘球(80년 法大卒) 姜孝植(61년 齒大卒) 高允錫(54년 文理大卒) 高恩姬(68년 文理大卒) 郭英哲(65년 農大卒) 丘月煥(67년 文理大卒) 權大旭(73년 農大卒) 權永吳(59년 藥大卒) 權鍾七(81년 法大卒) 權熙教(75년 農大卒) 奇宇奉(58년 工大卒) 金基道(73년 新大院卒) 金基玉(40년 경성여자사범) 金東圭(60년 工大卒) 金明振(78년 法大卒) 金明姬(55년 音大卒) 金文昌(65년 文理大卒) 金炳基(67년 齒大卒) 金錫鍵(55년 農大卒) 金星銖(74년 齒大卒) 金順實(41년 경성여자사범) 金承英(ACAD 43기) 金是昌(68년 文理大卒) 金榮國(54년 文理大卒) 金榮一(66년 法大卒) 金榮宰(81년 工大卒) 金榮鎭(79년 醫大卒) 金元主(57년 法大卒) 金允培(91년 農大卒) 金仁圭(73년 文理大卒) 金仁中(60년 法大卒) 金一洙(72년 文理大卒) 金在淳(52년 商大卒) 金載佑(73년 農大卒) 金貞植(56년 工大卒) 金鍾祺(51년 師大卒) 金珍我(98년 人文大卒) 金贊均(58년 師大卒) 金讚淑(60년 齒大卒) 金昌奎(64년 法大卒) 金昌鎬(65년 商大卒) 金昌悅(58년 法大卒) 金哲洙(56년 法大卒) 金哲中(71년 農大卒) 金澈鎭(88년 工大卒) 金炫旭(89년 社會大卒) 金炯英(60년 商大卒) 南光憲(66년 農大卒) 南芳元(39년 경성여자사범) 南鍾鎬(85년 工大卒) 盧炳秀(87년 法大卒) 明경희 文昌德(42년 경성여자사범) 閔丙一(56년 齒大卒) 閔元植(82년 醫大卒) 朴金玉(43년 경성여자사범) 朴紀正(68년 文理大卒) 朴南基(84년



孫京植동문



金貞植동문



李吉女동문



李燦河동문

師大卒) 朴東一(43년 경성제국대학) 朴東勳(70년 工大卒) 朴明潤(76년 保大院卒) 朴武勇(68년 法大卒) 朴鵬培(53년 師大卒) 朴世熙(59년 文理大卒) 朴淳泰(62년 商大卒) 朴英子(50년 師大卒) 朴玉均(90년 師大卒) 朴玉蓮(57년 齒大卒) 朴裕眞(62년 美大卒) 朴應七(65년 文理大卒) 朴仁鈞(79년 工大卒) 朴在潤(63년 商大卒) 朴鍾淑 朴鍾殷(56년 工大卒) 朴海鶴(59년 師大卒) 박 혁(90년 自然大卒) 朴和緒(44년 경성여자사범) 方孝宣(55년 文理大卒) 裴文煥(65년 行大院卒) 白文基(50년 藝術大卒) 白承吉(73년 商大卒) 卞永贊(83년 醫大卒) 徐澤東(80년 農大卒) 石昌仁(87년 齒大卒) 薛昌煥(73

(7면에 계속)

미술작품

車明熹 作

(작가 약력)

- △70년 모교 미대 회화와 졸업
- △83~98년 개인전 12회
- △89년 현대 미술 초대전
- △91년 현대 한국회화전
- △93년 예술의 전당 전관 개관기념 미술전, 서울 국제 현대 미술제
- △95년 한·중 미술교류전
- △96년 2인전
- △97년 쌀롱 그랑 에 켄 도주르쉬
- △98년 「Title, Untitle, Notitle」



「Untitled」, 63×95cm, 목탄·종이위에 아크릴릭, 1998.

(6면에 이어)

년 齒大卒) 小武徹郎(45년 경성
약전) 蘇炯先(77년 看護大卒)
孫一根(51년 法大入) 宋炳燮
(66년 文理大卒) 宋寅齊(60년
商大卒) 辛承原(94년 工大卒)
申彦日(77년 齒大卒) 辛容泰
(88년 人文大卒) 辛鍾桂(77년
工大卒) 辛鍾大(82년 法大卒)
沈相昊(96년 自然大卒) 沈相鶴
(67년 師大卒) 沈玉順(45년 경
성여자사범) 沈玉鎮(65년 工大
卒) 沈勇燮(74년 農大卒) 安炳
璨(75년 新大院卒) 安貞順(43
년 경성여자사범) 安哲浩(52년
工大卒) 梁培德(61년 工大卒)
魚聖俊(73년 工大卒) 呂寅喆
(79년 工大卒) 吳明淑(40년 경
성여자사범) 吳福東(63년 法大
卒) 吳仁錫(62년 法大卒) 禹觀
熙(67년 農大卒) 劉 權(82년
醫大卒) 俞東濬(60년 農大卒)
俞炳文(71년 獸醫大卒) 柳錫瑩
(64년 農大卒) 劉秀吉(66년 商
大卒) 俞益善(63년 工大卒) 劉
晶圭(43년 경성여자사범) 柳濟
華(85년 經營大卒) 尹相澈(51
년 藥大卒) 尹益錫(53년 農大
卒) 윤정익(91년 工大卒) 尹華
植(서울대 총무과) 尹孝喆(79
년 農大卒) 李康國(69년 工大
卒) 李景宰(63년 文理大卒) 李
灌祐(87년 醫大卒) 李光魯(51
년 工大卒) 李圭成(63년 文理大
卒) 李吉女(57년 醫大卒) 李道
千(60년 農大卒) 李東昊(63년
師大卒) 李秉培(58년 法大卒)
李丙俊(59년 商大卒) 李相玖
(85년 工大卒) 李相仁(67년 農
大卒) 李錫玄(67년 法大卒) 李
聖根(77년 齒大卒) 李聖秀(52
년 師大卒) 李世震(73년 法大
卒) 李世昌(61년 法大卒) 李壽
榮(60년 法大卒) 李昇烈(90년
齒大卒) 李時皓(81년 工大卒)
李信子(55년 美大卒) 李年憲
(65년 文理大卒) 李英子(69년
家政大卒) 李鎔雄(69년 文理大
卒) 李元哲(78년 法大卒) 李殷

祈(84년 大學院卒) 李仁基(66
년 文理大卒) 李仁涉(77년 醫
大卒) 李仁子(59년 家政大卒)
李在起(57년 農大卒) 李典九
(64년 農大卒) 李銓午(81년 法
大卒) 李鍾國(58년 醫大卒) 李
柱榮(74년 法大卒) 李俊一(65
년 文理大卒) 李燦河(67년 經
大院卒) 李喆玉(74년 保大院
卒) 李哲柱(65년 商大卒) 李春
虎(81년 醫大卒) 李炯均(64년
文理大卒) 李好榮(80년 齒大
卒) 林炳九(66년 農大卒) 林永
穆(63년 農大卒) 林鍾斗(68년
商大卒) 林鍾旭(57년 醫大卒)
任鶴淳(62년 齒大卒) 張吉平
(66년 農大卒) 張明化(37년 경
성여자사범) 張善岳(40년 경성
여자사범) 張世一(63년 工大
卒) 張翼龍(58년 工大卒) 張濬
皓(77년 法大卒) 全復奎(60년
商大卒) 鄭官瑞(85년 齒大卒)
鄭根和(70년 師大卒) 鄭昇太
(ACAD 30기) 鄭宰旭 鄭宗澤
(58년 法大卒) 鄭喜庚(65년 商
大卒) 趙大衍(73년 法大卒) 趙
英雄(67년 獸醫大卒) 趙王夏
(75년 法大卒) 朱惠璟(72년 文
理大卒) 池根鎮(64년 農大卒)
池昌壽(59년 商大卒) 崔慶元
(67년 法大卒) 崔明彥(63년 文
理大卒) 崔永洛(59년 師大卒)
崔鍾石(82년 齒大卒) 崔鍾順
(55년 藥大卒) 崔鍾云(83년 醫
大卒) 崔主鎬(39년 수원고농)
崔俊成(59년 文理大卒) 崔靑林
(63년 商大卒) 崔春欽(75년 文
理大卒) 崔 桓(65년 文理大卒)
崔熙仁(56년 獸醫大卒) 河永基
(48년 文理大卒) 河仁瓊(70년
文理大卒) 韓東珠(74년 美大
卒) 韓寶均(75년 齒大卒) 許
瑛(74년 看護大卒) 許 炯(55년
商大卒) 玄輝男(63년 法大卒)
洪思穆(52년 商大卒) 洪性萬
(67년 文理大卒) 洪性煥(82년
醫大卒) 黃慶九(61년 農大卒)
黃永九(78년 齒大卒)

(燮)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존재 「나」

郭懸縢(97년 人文大卒) LG- EDS 사원



『00가 우리 프로젝트 여자들 중에 제일 낯지』
얼마전 회사 남성들의 이런 말에 기분이 언짢
았던 것은 00가 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느꼈던 감정은 『옆집 00는 반에
서 1등을 했다던데, 너는...』, 『내 친구 00는 능
력있는 남편 덕에 유럽여행 다녀왔다는데, 당신
은...』 등의 말을 듣는 이가 느꼈을 감정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사람들의 이런 말에 기분이 상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자신의 못남」에 열등감을 느껴서일까? 글쎄,
이것도 이유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보다 큰 이유
는 자신이 남과 무자비하게 「비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남과 「비교」되는 것
을 끔찍하게 싫어하므로. 그런데, 왜 우리는 비교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나는 예전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
다. 그냥 싫다는 감정만이 분명할 뿐이었다. 어떤
때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럴 거야」하며 내탓으
로 돌리기도 했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비교 행위가 나쁜 것이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대학 3학년때 들었던 어
느 교양수업에서였다.

『비교라는 것은 A와 B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
제로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두
사람의 독특한 특성과 고유한 가치를 모두 배제
하여, 그 둘이 모두 같고 어느 한 면만이 다르다
고 보고 그 면을 놓고 우열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유한 개성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A와 B가 다르다면 그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로 다른 둘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생태가 다른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하
여, 바다에서 빠른 거북이를 놓고 육지에서 토끼
보다 느리다고 느낌보 거북이라고 하는 것과 같
이, 개개의 사람도 그의 면을 고려해 본다면 토끼
와 거북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

내 마음이 회사 사람들의 그런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은 내가 온 종게도 사람의 가치
를 온전하게 존중해주는 이들과 함께 대학시절을
보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과 동기 중에 나

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얼굴도 비슷
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날
모임의 자리에 그 친구 없이 나만 참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친구의 불참을 의아스럽게 나에게
물어왔다. 그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이 자리에서는 괄은영이만 생각하자. 너
희들 그거 아니? 이은영이랑 괄은영이 같이 서
있을 때, 그림자가 두 개 생기는 거』

나의 독특함과 개성이 그 친구의 것과 더불어
온전하게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와 개성,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을 진정
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돌
이켜보면 내 자신도 무심결에 이런 가치를 무시
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때가 있다. 앞으로는 의
식적으로라도 대학시절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
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소중한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준 대학과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998년도

대 차 대 조 표

1998.1.1부터 1998.12.31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부채	
1. 유동자산	(2,847,977,308)	1. 유동부채	(49,469,196)
(1) 당좌자산	(2,847,977,308)	1) 예수금	6,550,019
1) 현금과 예금	2,581,264,160	2) 미지급금	42,919,177
2) 미수금	32,500,000	3) 가수금	
3) 미수수익	161,040,248	2. 고정부채	(30,097,750)
4) 받을 어음	4,100,000	1) 수입보증금	2,500,000
5) 가지급금	0	2) 퇴직급여충당금	27,597,750
6) 제세선납금	69,072,900		
		자본	
		1. 자본금	(4,161,271)
2. 고정자산	(11,498,273)	1) 기본금	4,161,271
1) 지급보증금	2,300,000	2. 장기미지급이익잉여금	(2,775,747,364)
2) 비품	31,174,900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775,747,364
감가상각충당금	21,976,627	※ 당기순이익	(378,736,818)
합 계	2,859,475,581	합 계	2,859,475,581

결 산 공 고

손 익 계 산 서

1998.1.1부터 1998.12.31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 매출액	(122,960,000)	13) 관악회기금전출	64,595,444
1) 회보 광고료	122,960,000	14) 잡비	2,501,428
2. 매출원가	(391,234,960)	15) 잡손실	0
1) 간행물비	391,234,960	16) 교육목적사업비환급	
3. 매출총이익	△268,274,960	5. 사업비 차감후이익	(△765,409,825)
4. 사업비	(497,134,865)	6. 영업외 수익	(1,144,954,643)
1) 인건비	63,435,000	1) 회원회비	649,276,262
2) 회의비	16,621,408	2) 수입이자	273,166,832
3) 여비 교통비	2,400,000	3) 찬조금	221,551,602
4) 전산화 비용	25,136,600	4) 잡수입	959,947
5) 사무비	14,563,680	7. 영업외 비용	(808,000)
6) 세금과 공과	5,204,610	1) 교육목적사업비환급	0
7) 보험료	1,753,950	2) 잡손실	808,000
8) 퇴직급여충당금일정액	16,872,790	8. 특별손실	
9) 감가상각충당금	8,545,909	1) 고정자산처분손실	
10) 천목사업비	54,163,198	9. 법인세차감전이익	(378,736,818)
11) 지원사업비	53,693,387	10. 법인세 등	
12) 조직강화비	167,647,461	11. 당기순이익	(378,736,818)

위와 같이 공고함
1999.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 在 淳

이 동 정

수 상

▲金有聲(54년 工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3월 17일 건국대에서 상허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허대상(학술부문)」을 받음.

▲韓相泰(55년 醫大卒·WHO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최근 에스트라다 필리핀대통령으로부터 결핵퇴치와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카투 나훈장 라카」를 받음.

▲李相滿(56년 獸醫大卒·웅진군 축산물위생 검사원)=지난 2월 26일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표창패」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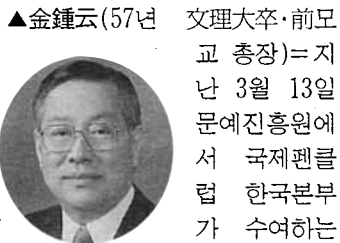
▲劉東洙(56년 齒大卒·한국구라봉사회 회장)=지난 3월 17



창패」를 받음.

▲劉東洙(56년 齒大卒·한국구라봉사회 회장)=지난 3월 17

일 건국대에서 상허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허대상(의료부문)」을 받음.



▲金鍾云(57년 文理大卒·前모교 총장)=지난 3월 13일 문예진흥원에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수여하는 제33회 「번역문학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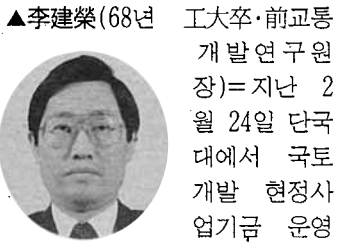
▲李富燮(60년 工大卒·동진화성공업 사장)=지난 3월 8일 힐튼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3회 「한국공학기술상」을 받음.

▲高斗模(63년 商大卒·대상(주)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3월 1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宋丙洛(63년 商大卒·모교 부총장)=지난 3월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자유기업센터가 수여하는 제10회 「자유



경제출판문화상」을 받음.



▲李建榮(68년 工大卒·前교통개발연구원장)=지난 2월 24일 단국대에서 국토개발 현정사업기금 운영위원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13회 「현정국토개발상」을 받음.

▲鄭雲映(69년 商大卒·한겨레신문 논설위원)=지난 3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언론재단이 수여하는 제3회 「삼성언론상(논평·비평부문)」을 받음.

▲柳重根(4기 AMP·중앙방송기업(주) 사장)=지난 3월 15일 세종대왕기념관에서 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와 장영실과학대상조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회 「장영실과학기술 대상」을 받음.

▲田潤洙(39기 ACAD·성원그룹 회장)=지난 3월 1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고려경영포럼에서 「경영포럼 대상」을 받음.



럼 대상」을 받음.

이 동 · 선 임

▲姜永奎(52년 法大卒·부산대 겸임교수·前駐필리핀 대사)=최근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됨.



▲池尙夏(56년 農大卒·충남대 교수)=최근 사단법인 한국낙농진흥회 초대 회장에 선임됨.



▲徐廷旭(57년 工大卒·초당대 총장)=지난 3월 23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됨.



▲尹炳奭(57년 文理大卒·인하대 명예교수)=최근 도산 안창호선생 기념사업회 부설 도산사상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임됨.



▲金鎮炫(58년 文理大卒·서울시립대 총장)=지난 3월 17일 문화일보사 주주총회에서 문화일보 사장에 내정됨.



▲張永壽(59년 工大卒·대우건설 총괄사장)=지난 2월 22일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黃秉冀(59년 法大卒·이화여대 교수·가야금 연주자)=지난 3월 9일 유니세프문화예술클럽 신임 회장에 선임됨.



▲金銀洙(61년 商大卒·LG-EDS시스템 사장)=최근 한국CAD·CAM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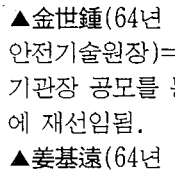
▲張大錫(62년 農大卒·쌍용농장 대표)=지난 2월 24일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에 선임됨.

▲康祐赫(62년 法大卒·前국회의원)=최근 학교법인 경원학원 상임이사에 선임됨.

▲康容植(63년 法大卒·국회의원)=최근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에 선임됨.



▲朴英珠(63년 商大卒·이건산업 회장)=최근 한국합관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임됨.



▲金世鍾(64년 工大卒·원자력안전기술원장)=지난 2월 23일 기관장 공모를 통해 제4대 원장에 재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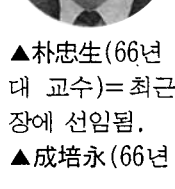
▲姜基遠(64년 法大卒·변호사)=지난 3월 18일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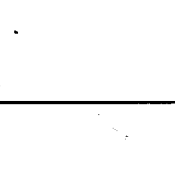
▲金璟林(64년 法大卒·前은행감독원 부원장)=최근 부산은행 행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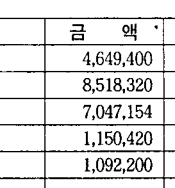
▲朴源培(64년 商大卒·(주)한화 총괄 회장)=지난 3월 9일 한화종합화학 총괄 회장으로 자리를 옮김.



▲鄭相千(64년 行大院卒·자민련 부총재)=지난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됨.



▲朴忠生(66년 大學院卒·경상대 교수)=최근 경상대학교 총장에 선임됨.



▲成培永(66년 農大卒·한국식

(9면에 계속)

「99년 INMC 작곡상」 수상

모교 음대 姜碩熙교수

미국 뉴욕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했던 姜碩熙(60년 音大卒·모교 교수)동문이 지난 3월 2일 뉴욕대학교가 제정한 International New Music Consortium(국제 현대음악 협회)의 「1999년 INMC 작곡상」을 수상했다.

본상은 뉴욕에서 작곡 활동을 한 작곡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 밀톤 베일을 위시하여 21명으로 구성된 위원



들이 선정, 수상하는 상이다.

한편 姜碩熙동문은 지난 2월 11일 맨하탄음대 허바드홀에서 「한국의 지도적인 작곡가」라는 타이틀로 6개의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信)

1998년도

결 산 공 고

대 차 대 조 표

1998.1.1부터 1998.12.31까지

(단위: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3,504,358,477	I. 유동부채	15,777,401
(1) 당좌자산	3,504,358,477	1. 매입채무	2,836,950
1. 현금과 예금	3,274,720,074	2. 예수금	1,041,870
2. 매출채권	69,007,700	3. 부가세예수금	7,507,020
3. 미수수익	52,497,513	4. 가수금	0
4. 가지급금	0	5. 예수보충금	1,793,000
5. 선납세금	108,133,190	6. 선수수익	2,598,561
(2) 재고자산	0	II. 고정부채	1,329,875,849
II. 고정자산	1,465,739,026	1. 임대보증금	939,942,600
(1) 부자자산	2,562,672	2. 퇴직급여충당금	29,882,820
1. 전신전화가입권	2,562,672	3. 국민연금전환금	6,842,500
(2) 유형자산	1,463,176,354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66,892,929
1. 토지	655,715,410	부채 총계	1,345,653,250
2. 건물	1,077,258,031	자본	
감가상각누계액	364,127,960	I. 자본금	1,831,429,422
3. 구축물	353,031,313	1. 자본금	1,708,855,444
감가상각누계액	284,064,441	2. 기본잉여금	122,573,978
4. 기계장치	74,222,072	II. 자본잉여금	0
감가상각누계액	67,092,305	1. 자본준비금	0
5. 차량운반구	18,400,960	2. 재평가적립금	0
감가상각누계액	14,405,547	III. 이익잉여금	1,793,014,831
6. 비품	79,269,218	1. 차기이익잉여금	1,793,014,831
감가상각누계액	65,030,397	2. 당기순이익	168,238,679
(3) 무형자산	0	IV. 자본조정	0
(4) 이연자산	0	자본 총계	3,624,444,253
자산 총계	4,970,097,503	부채와 자본 총계	4,970,097,503

손 익 계 산 서

1998.1.1부터 1998.12.31까지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매출액	(302,353,390)	16.사무용품비	4,649,400
1.임대료수입	183,751,800	17.소모품비	8,518,320
2.유지료수입	118,601,590	18.지급수수료	7,047,154
II.매출원가	(0)	19.잡비	1,150,420
III.매출총이익	(302,353,390)	20.청소비	1,092,200
IV.판매·일반관리비	(306,649,366)	V.영업손실	(4,295,976)
1.직원급여	78,954,000	VI.영업외 수익	(609,633,545)
2.상여금	17,084,000	1.이자수익	432,571,896
3.퇴직급여충당금전입	11,207,219	2.찬조금수입	112,158,000
4.복리후생비	9,412,800	3.동창회전입	64,595,444
5.여비교통비	2,730,000	4.장이익	308,205
6.접대비	260,480	VII.영업외 비용	(432,833,790)
7.통신비	5,277,940	1.목적사업준비금전입	432,571,896
8.수도광열비	34,483,467	2.잠손실	261,894
9.세금과 공과금	41,159,606	VIII.경상이익	(172,503,779)
10.감가상각비	52,436,060	IX.특별이익	(0)
11.수선비	22,711,400	X.특별손실	(4,265,100)
12.보험료	3,451,560	전기오류수정손실	4,265,100
13.차량유지비	4,790,990	XI.법인세차감전이익	(168,238,679)
14.운반비	86,350	XII.법인세 등	(0)
15.도서인쇄비	146,000	XIII.당기순이익	(168,238,679)

위와 같이 공고함
1999. 3.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金 在 淳

(8면에 이어)



품개발원장)
=지난 2월
26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
서 열린 한국
농업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취
임함.

▲李長茂(67년 工大卒·모교 공
과대학장)=최근 한국산업평가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의 예식에 대한 사명은 하안드레
스(전화 02-716-2230)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원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盧敬燮(67년 商大卒·(주)한
화 건설부문
부사장)=지
난 3월 9일
한화 총괄 부
회장겸 한화
건설부문 대



표이사에 선임됨.

▲李甲鉉(68년 商大卒·외환은
행 상무)=지
난 2월 26일
정기주주총회
에서 외환은
행장에 선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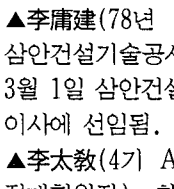
▲尹榮燮(70년 商大卒·고려대
교수)=최근
한국증권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
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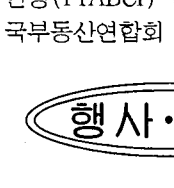
▲文信容(74년 醫大卒·모교 교
수)=지난 3
월 8일 인간
생식, 인구역
학, 노인보건
복지 등을 연
구하는 모교



인구의학연구소장에 취임함.
▲李庸建(78년 環大院卒·(주)
삼안건설기술공사 상무)=지난
3월 1일 삼안건설기술공사 전무
이사에 선임됨.



▲李太教(4기 AMP·한성대 행
정대학원장)=최근 세계부동산
연맹(FIABCI) 한국지부 및 한
국부동산연합회 회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美大同窓會長)=지
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갤
러리 우덕에서 陳松子·崔仁壽·
洪淳模·柳 薰·吳義錫·李容德·
金裕善등문 등을 초대하여 「韓
國現代彫刻의 表象-99展」을 가
집.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
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3

부산지역 사회봉사의 숨은 일꾼

東西學園 재단 康奭哲사무국장



康奭哲(76년 人文大卒)동
문은 부산 동서대학·경남정
보대학재단 사무국장으로 재
직하면서 여러 동창회 활동
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
여하여 부산의 마당발로 통
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 연
고가 없는 동문들의 어려운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줘 많
은 동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최근에도 康동문은 급
박한 상황에서 어렵게 찾아
온 某동문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줘

화제가 됐다.

학문활동과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康동문이
앞으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일꾼이 되길 바란다.
(연 락 처:051-324-1113,
016-566-4265)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
다.

*박규한 군(90년 人文大
卒)·이형선 양=4월 17일 12
시30분.

*손흥만 군(93년 社會大
卒)·고수정 양=4월 17일 14
시.

*윤종현 군(93년 人文大
卒)·박진영 양=4월 17일 15
시30분.

*심상명 군(88년 社會大
卒)·이소영 양=4월 18일 11
시.

*조규탁 군(90년 農大
卒)·이정이 양 = 4월 18일
12시30분.

*김기정 군·김정렬 양(95
년 看護大卒)=4월 18일 14
시.

*박운본 군(95년 經營大
卒)·공미희 양=4월 18일 15
시30분.

*민관홍 군(89년 社會大
卒)·김해정 양=4월 24일 12
시30분.

*김학철 군(92년 自然大
卒)·임태진 양=4월 24일 14
시.

*김영규 군(89년 經營大

卒)·구경숙 양=4월 24일 15
시30분.

*심창수 군(93년 藥大
卒)·서정호 양=4월 25일 14
시.

*송준석 군(98년 大學院
卒)·전상미 양=5월 1일 12
시30분.

*이상훈 군(94년 農生大
卒)·김은남 양=5월 1일 14
시.

*유용섭 군(90년 工大
卒)·임혜숙 양=5월 2일 12
시30분.

*최원재 군(98년 社會大
卒)·김희경 양=5월 2일 14
시.

*이원일 군(98년 經營大
卒)·안미라 양=5월 5일 12
시30분.

*임성재 군(98년 農生大
卒)·함은주 양=5월 8일 12
시30분.

*이동묵 군(94년 社會大
卒)·성연주 양=5월 8일 14
시.

*남진현 군(85년 工大
卒)·조선연 양=5월 8일 15
시30분.

*조인식 군(91년 社會大
卒)·이영선 양=5월 9일 12
시30분.

*진성민 군(92년 自然大
卒)·최경화 양=5월 9일 15
시30분.

가 「나혜석여사 탄생 103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
로함.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
소비자연맹
부산시 회장)
=지난 3월
17일부터 19
일까지 해운
대 일대를 포



함한 인근 아파트 주민을 위한
가전제품 이동 상담 서비스 행
사를 가짐.

▲李康淑(61년 音大卒·한국예
술종합학교 총장)=지난 3월 9
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에서 명예음악박사 학위를 받음.

▲曹相鎬(67년 行大院卒·창조
장학회 이사
장)=지난 3
월 13일 대성
학원 강당에
서 99년도 장
학금 수여식



을 가짐.

(10면에 계속)

월 25일 「진정한 한반도 안보」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짐.

▲尹鍾琳(57년 文理大卒·홍익
대 명예교수)
=지난 3월
20일 런던에
서 열린 「국
제 작가의
날」 행사에



참석함.

▲金璟東(59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영국 국제인
명등록센터에
서 탁월한 업
적을 인정받
은 인물들을



소개하기위해 발간하는 「아시아
-태평양국가 인명록」(1999년
판)에 등재됨.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
미사료 협회
장)=4월 27
일 문화예술
회관에서 우
리나라 최초
의 여성운동



〈9면에 이어〉

▲林吉鎮(69년 工大卒·KDI국제



대학원장)= 최근 뉴욕대 학에서 열린 「아시아 기적의 재구축」 토론회에 참

석, 경제재건문제에 대해 발표함.

▲全誠煥(72년 音大卒·대구호



성 가톨릭대 교수)= 지난 3월 13일 호암아트홀에서 모교 음대 全鳳楚 명예교수

의 八旬을 기념해 全美映(84년 音大卒·한국교원대 교수)·全昭映(84년 音大卒·세종대 강사) 동문 등과 함께 가족연주회를 가짐.

▲金炳均(78년 新大院卒·기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지난 3월 12일 금오공대에서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금오공과대학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음.

▲韓蕙慶(79년 美大卒)=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관훈갤러리에서 金貞姬·朴顯淑·安末煥·李鍾愛·李昌芬·

全孝順 동문 등과 함께 제9회 「서울·봄展」을 가짐.

▲金炳宗(81년 美大卒·모교 교

수)= 지난 3월 5일부터 15일까지 가나아트센터에서 닥종이와 치자물 등을 이용한 동양화 「생명의 노래展」을 가짐.

▲朱京哲(83년 社會大卒·모교

교수)= 최근 민중들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사 이야기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문학과 지성사刊)을 출간함.

▲洪承南(83년 美大卒·서울시립대 교수)=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포스코센터 미술관에서 제8회 「금속과 조형展」을 가짐.

▲盧尙均(84년 美大卒)= 최근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가작가로 선정됨.

▲姜吉夫(84년 環大院卒·한국



감정원장)= 지난 3월 12일 부동산 전문 계간지인 「부동산 Research」를 창

간했으며, 부동산정보센터(<http://www.kreic.com>)를 개설함.

▲李基廷(86년 音大卒·세종대



교수)= 지난 4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국심포니아오케스트라 창

단 8주년 기념음악회에 참가, 그리고 콘첼토를 연주함.

▲高明根(87년 美大卒)= 지난

3월 5일부터 17일까지 학교에서 사진 매체의 복제성에 주목한 「복제와 복고展」을 가짐.

▲李炯敏(90년 音大卒)= 지난



3월 12일 호암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金莊坤(37기 ACAD·한국원자



력문화재단 이사장)= 지난 3월 9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원자력발전과 지

역사회」에 관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함.

(정리=李美連 기자)



한국치매협회 禹鍾仁회장

“원격 진료 실시...실버웹 발행할 터”

현재 국내에는 26만여명의 노인(65세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는 노인인구의 8.3%에 이른다. 이에 본報에서는 최근 한국치매협회 제3대 회장에 선임된 모교 禹鍾仁(72년 醫大卒)교수를 만나 치매와 관련된 문제와 협회 운영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치매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옛날에는 치매를 老妄이라 하여 정상적인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 왔는데 치매가 질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치매의 증상도 매우 다양해 불안·초조로 인해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고, 피해망상과 의심이 늘어나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 돌보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로 인해 환자를 방치하는 가족도 생겨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협회 창립 배경은.

『치매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치료관리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94년 12월 의학·사회복지학·간호학·경영학·경제학·법학·심리학·영양학 등 관련 8개 분야의 전문가들과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모여 치매협회를 창립했습니다. 현재는 총 4백80여명의 회원과 후원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주요 활동은.

『치매라는 질병을 사회 이슈화 시켜 많은 사람들이 의료문제로 관심을 갖게끔 홍보해왔습니다. 또한 치매전문요양원 80개와 전문병원 15개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치매종합대책 10개년 계획」을 정부에 건의, 96년 3월에 정식 대책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95년부터 치매간병인력 교육훈련 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원하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모교 병원과 전문 요양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치료하는 「원격 치매진료 시스템」운영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련 정보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실버웹(<http://silverweb.snu.ac.kr>)을 운영 중입니다』

—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은.

『노인 자신이 복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돌보기나 주차장 관리 등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직종을 보호해주어야 하며, 의료와 관련해서도 치매노인을 진료하기 위해

서는 시간과 힘이 몇 배로 들기 때문에 다소 꺼리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환자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노인진료수과를 별도로 상향 조정한다면 자연히 개선되리라 봅니다』

— 앞으로 계획은.

『치매 사업에 대한 인력과 시설 표준화를 비롯 환자를 위한 법적 구조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치매에 대한 학술연구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초기환자를 가정에서 진단·관리할 수 있는 가정중심 치매치료 관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실버웹을 발행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들을 위해 간병인 및 치료편의를 도울 수 있는 치매등록사업도 앞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치매협회 : 785-0710/1)

(美)

(주)흥인 鄭八道회장

25년간 각종 범죄예방운동에 헌신

재소자의 합동결혼·기업체 근무 주선

요즈음 모 방송에서 「칭찬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듯하다. IMF로 각박하고 어려워진 사회속에서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이러한 선행을 하는 많은 동문들이 있으며, 그 중 鄭八道(1기 AIP·(주)흥인 회장)동문은 25년간 범죄예방운동을 비롯한 소년소녀 가장 돕기·장애인 후원 등 봉사 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鄭동문이 처음 봉사운동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1년 설립한 부품 제조공장인 (주)흥인이 안양으로 확장·이전하여 안양경찰서 선도위원회 위촉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안양교도소 출소자 한 사람을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 받은 鄭동문은 고심 끝에 채용을 결심했으며, 성실히 일하여 새로운 자립의 길을 열어 가는 모습을 보고 갱생보호사업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鄭동문은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 위원으로서 재소자 방문 상담을 비롯해 취업알선과

생계지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그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들의 합동결혼식을 열어 그들이 가정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함으로써 다시는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봉사에 대한 보람보다 두려움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요즘에는 그런 갈등이 언제 어느 때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저에게 주어진 삶의 소명이라 느껴집니다』

鄭동문은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와 느끼게 되는 편견과 경시현상 등이 재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며,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포용한다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鄭동문은 안양교도소 모범 재소자 1백76명을 자신의 업체로 외부 통근시켜 기술과 자립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교도소측이 요구하는 외부통근 조건을 맞추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하는 鄭동문은 그보다 함



범죄예방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鄭동문(左)

게 일하게 될 직원들이 더욱 격정되었다고 한다.

『노사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앞장서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재소자들도 함께 땀흘리고 일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 가족처럼 친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한 모범 재소자가 출소 당일 제일 먼저 회사를 찾아와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지도와 사랑에 감사하다며 작은 선물을 전했던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감동하며,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는 鄭동문은 자동차 부품공장인 (주)흥인뿐 아니라 흥인물류, (주)코리아랜드를 설립, 튼튼한 중소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왔다.

또한 모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동창회장과 국제로타리 제3640지구(AIP로타리클럽) 회장으로서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美)

동문기업



탐방

③③ (주)우리기술

原電「디지털 정보시스템」최초 국산화 성공

올 매출액 1백80억원...통신분야서도 두각

「젊은 기업, 도전하는 기업」(주)우리기술. 글자 그대로 젊은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가득찬 벤처기업이 바로 (주)우리기술이다.

우리기술의 金德祐(85년工大卒)사장은 조금만 노력하면 국산화할 수 있는 제품까지도 외국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기술로 세계기술의 벽을 뛰어 넘어보자」는 신념하에 지난 93년 우리기술을 설립했다.

지난 94년 총 4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원자력발전소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우리기술은 영광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처음 설치한 이후 영광 2호기, 고리 3, 4호기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으며, 영광 5, 6호기 정보시스템 또한 수주한 상태.

이 시스템의 개발로 우리기술은 원전설비 최초 국산화라는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96년 1월 「최우수 IR52 장영실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신기술인증(NT마크) 및 국산신기술인증표시(KT마크)를 각각 획득한 바 있다.

우리기술의 기술력을 돋보이게 하는 제품으로는 「DCMS(Distributed Control & Monitoring System-분산제어감시시스템)으로 발전소, 플랜트 등의 데이터 취득



金德祐사장

「무선, 멀티미디어 SCADA 시스템」은 98년 12월에 각각 제품을 발표, 업계로부터 크게 각광을 받았다.

한편 우리기술은 통신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며, 「전원집중관리시스템(전화국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백업전원을 관리해주는 비상시스템)」을 개발, 성능시험·개발시스템운용시험·상용시 제품시험 등에 성공했으며, 현재 지역 시범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Y2K(밀레니엄 버그)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기술은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WeGo2000」이라는 Non-IT(비전산)분야의 Y2K문제 해결 방법론을 제시,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원자

력발전분야 및 기간통신분야 등에서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어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술은 미국 원자력연구소에 의해 검증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이미 한국전력의 8개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한국통신 위성사업단, 한국중공업, 한국은행, 호남 석유화학, 덕성화학 등 발전설비, 통신, 석유화학, 제철, 제지분야의 20여개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Y2K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Y2K 문제 해결을 준비 중이다. 우리기술은 96년 8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연이어 97년 12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특히 98년 6월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유망전력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첨단 계속제어시스템 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우리기술에는 현재 金德祐사장을 비롯해 尹勝重(85년工大卒)이사, 魯宣奉(87년工大卒)연구소장, 盧鉾善(88년工大卒)연구부소장, 趙永國(88년經營大卒)실장, 文聲喆(89년人文大卒)차장, 朴庭佑(89년工大卒)차장, 李

率榮(91년工大卒)과장 등 다수의 동문들이 근무하고 있다.

종업원 1백7명의 우리기술은 올해 매출액 1백80억원, 내년 3백억원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첨단 계속제어시스템 사업분야와 정보시스템 사업분야를 총망라한 Total Solution 업체로서 세계 초일류 기업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信)



디지털 정보시스템 설치 장면

간호대학

신입 회원에게 기념배지 전달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3월 20일 모교 간호대 강당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宋美順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신입 회원 30여명이 참석해 꽃다발과 기념

배지를 받았다.

同會는 이날 98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에 이어 9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했으며, 임원개선을 통해 楊銀淑회장을 재선출했다.

의과대학

유공 동문·우수 동기회 표창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23일 신라호텔에서 모교 李正相학장, 朴容眩병원장을 비롯해 동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同會는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적극 협력한 嚴英燮·文孝重·韓萬熙·朴永寬·申順澈·朴芝洪·楊斗炳동문 등에

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서울 강서·양천지회를 비롯한 우수 지회 9곳과 17·18·24회 등 우수 동기회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어 98년도 감사 보고와 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임원개선을 통해 李吉女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남가주 지부

吳興祚회장 선임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 方錫勳)는 지난 2월 6일 래디슨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 회장에 吳興祚(61년 齒大卒)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에 徐永錫(61년 醫大卒)부회장, 감사에 金載榮(66년 農大卒)·金京茂(75년 工大卒)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가정간호수습과정

朴永淑회장 뽑아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회장 崔哲熙)는 지난 2월 6일 모교 간호대 가정간호강의실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8년도 감사 및 사업시행 보고와 9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임원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朴永淑(CHCN 2기)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음악대학

「동창의 밤」 개최

音樂大學同窓會(회장 李南洙)는 지난 3월 1일 하얏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99 자랑스런 서울음대 동창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 음대 金麟惠교수가 「희망의 나라로」 등의 축하를 선사했으며, 김준호·손심심씨가 참석, 특별 강연을 펼쳤다.

신문대학원

金圭煥박사 추모집 출판기념

新聞大學院同窓會(회장 李濟薰)는 지난 3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 겸 故 金圭煥 박사 추모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특히 신문대학원 설립자이셨던 金圭煥선생님의 추모집출판 기념회를 함께 갖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하며 『언론계와 학계를 비롯 각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문들이 더욱 힘을 합

쳐 국가와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8년도 결산 승인 및 9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임원개선을 통해 李濟薰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한편 북한문제 전문가인 安瑛燮(76년卒·명지대 교수)동문이 참석, 「올해 한반도 위기설의 정제」에 관해 특별강연을 펼쳤다.

최고산업전략과정

AIP창설 10주년 기념식 거행



鄭회장이 姜錫昊명예교수(右)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八道)는 지난 3월 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모교 李基俊총장, 李長茂공대학장, 林光洙공대동창회장 등 각계동문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산업전략과정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李鍾燦(1대)·金榮洙(2대)·朴熺奭(3대)·崔在英(4대)·鄭八道동문 등 同

會의 발전에 기여한 전·현직 회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최고산업전략과정 창설에 기여한 모교 金商周명예교수, 鮮于仲皓 前총장, 姜錫昊명예교수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자리에는 康奉均(69년 商大卒)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 「국민의 정부, 경제 재건 전략과 실업문제 해결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美)

약학대학

신입회원 및 우수 동문 표창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2월 27일 롯데월드호텔에서 「199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일본 藥窓會 방문과 동문 바둑대회 등을 비롯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8년도 감사·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와 함께 친목사업과 장학금 지원 등의 모교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한 9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동창회 발전과 동문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孫南植 趙南春·李宗址·沈正淑·閔炳琳 부회장이 「총동창회장賞」을, 李寬淳·朱尙涉·崔正樹·權善珠·李殷東·宋鍾永·李丙輝 동문 등이 「약대동창회장賞」을 받았다.

또한 신입회원 중 약학과 柳惠鉉, 제약학과 車赫眞 동문을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 상패를 수여했으며, 약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咸鏞軒(약업신문사 사장)·尹浩憲(약국신문사 회장)·洪傳善(약국신문사 사장) 동문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상송회

정기적 간사·기별모임 갖기로

상대출신 태권도 유단자들의 모임인 상송회(회장 司空壹)는 최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99년도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司空壹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총회를 통해 건강한 동문 여러분의 모습을 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금모금에 참여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1세기를 맞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동문여러분의 지속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올해 기금 목표액을 1억원으로 잠정 책정했으며,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同會는 주소록을 새롭게 재정비하기로 합의했으며, 정기 간사모임 및 기별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司空壹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목사회

金相福회장 재선출

모교 출신 목사들로 구성된 牧師會(회장 金相福)는 지난 2월 19일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1년에 2회(봄·가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갖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총회시 합의한 목사회보 발간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 金相福회장을 재추대했다.

언어학과

金光植회장 선임

언어학과동창회(회장 全泳杓)는 지난 2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金光植(고려대 연구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權曰淳(광진미래연구소장)·金淑子(상명대 교수)·禹倫植(부산외대 교수)동문을 선임했으며, 감사에 卞光洙(한국외대 교수)·金基中(광주대 교수)동문을 선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차기 회장에 李傑三(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동문을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법대 26회

河哲容회장 뽑아

법대26동기회(회장 權純旭)는 최근 강남 아세아도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입 회장에 河哲容(변호사)동문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梁東信(국민은행 경영혁신실장), 康寶鉉(변호사)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총무에 柳昌洙(대우건설 투자분석팀장)동문, 감사에 朴錫仁(금호건설 상무이사)동문을 각각 선출했으며, 등산회장과 골프 및 바둑회장은 재선임했다.

치대 22회

격월 모임갖기로

치대22동기회(회장 文福剛)는 최근 명동 「대림정」에서 역대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同會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등산대회와 골프대회를 연 2회 가짐으로 합의했다.

간호대 73회

졸업 25주년 행사 미국서 개최



간호대73동기회(간호학과를 73년에 졸업한 동기 모임)는 지난 2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졸업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白榮福, 朴商璉, 金承珠, 金善玉, 金英姬, 金令玉, 嚴世玉, 金貞愛, 崔瓚珠, 朴鳳洵, 黃善珠 동문 등과 멀리 한국에서 온 李仙玉, 鄭喜先, 姜彩遠, 尹順寧, 安英淑, 鄭文姬, 金喜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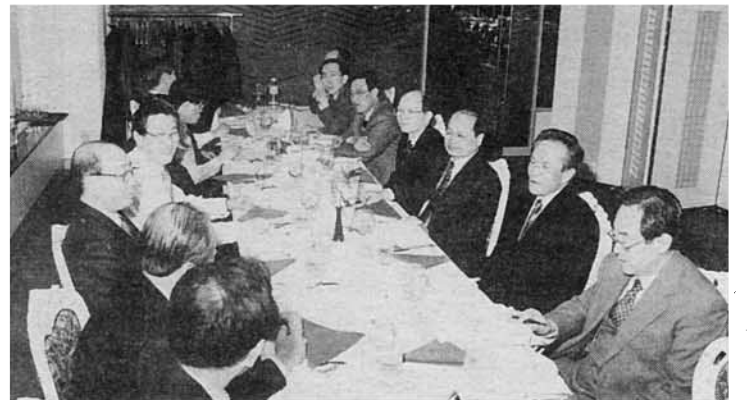
朴淑姬, 嚴吉順 동문 등이 참석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동문간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정을 나누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졸업 30주년이 되는 2004년엔 모교가 있는 서울에서 기념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同會는 행사 다음날인 21일부터 25일까지 디즈니랜드, 라스베이거스, 그랜드캐년 등을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대 14회

내년 3월 28일 졸업기념 행사



우측에서 두 번째 李회장

치대14동기회(회장 李大源)는 지난 3월 15일 명동 소재 서울로얄호텔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楊熙一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내년 3월 28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 내용에 관한 토의

등을 가졌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金吉洙, 朱洛林, 李玹載, 韓章述, 文相仁, 金泳勳, 金光瑞, 李起敏, 嚴必成 동문 등이 참석했으며 同會 활성화에 적극 매진기로 다짐했다.

안동대 동문교수 모여

전임 李鎮高총장 환송



좌로부터 네 번째 李鎮高동문

안동지부동창회 소속으로 안동대학교에 재직중인 동문들은 지난 2월 9일 안동시 강남동 소재 「청록식당」에서 안동대 총장

직을 이임하고 서울산업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李鎮高(61년 商大卒)동문을 환송하는 모임을 가졌다. (信)

만평

李元馥



모임예정

대학원

4월 22일 정기총회

大學院同窓會(회장 裴載湜)는 4월 22일 오후 6시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99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593-3033)

화학공학과

4월 27일 정기총회

화학공학과동창회(회장 沈利澤)는 4월 27일 오후 7시 상의클럽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880-7412)

경영대학원

4월 30일 정기총회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孔大植)는 4월 30일 오후 6시 30분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생활관에서 「99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702-3366)

농과대학

5월 15일 정기총회

農科大學同窓會(회장 尹勤煥)는 5월 15일 정오 모교 수원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99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0331-290-2106)

공과대학

5월 16일 등산대회

工科大學同窓會(회장 鄭哲圭)는 5월 16일 오전 10시 모교 신공학과 301동 118호에서 「99년 정기총회 및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877-0568)

모교소식

99학년도 입학식

최종 4천9백15명 등록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보직교수, 신입생, 학부모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李基俊총장은 식사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컴퓨터 지식과 영어를 마스터해야 하며 Global Citizenship, 세계

시민으로서 교양과 예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9학년도 신입생 최종 등록 결과를 보면 전체 등록대상자 4천9백87명에서 추천전형 4백86명, 특차전형 8백6명, 정시전형 3천6백19명, 정원의 학생 입학전형 재외국민 80명, 외국인 18명 등 총 5천9명중 94명이 미등록하여 최종 등록자 수는 4천9백15명이다.

수의대학장에 李榮純교수

대학신문 胡文赫주간 임명

지난 3월 3일 수의대학장에 수의학과 李榮純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李학장은 72년 서울농업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5월 모교에 부임하여 실험동물사육장, 사육병리부장을 지냈으며 한국독성학회, 한국환경호르몬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8일 대학신문 주간에 법학부 胡文赫교수를 선임했다.

胡교수는 72년 모교 법대를 졸업, 대학원을 거쳐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 법대 학생담당 학장보, 교무담당 부학장을 역임했다.

박물관

수요교양강좌

박물관(관장 崔夢龍)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사 분야의 시청각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874-5693, 880-5333)

▲강의 제목 및 강사: △4월 14일: 조선 후기 불화의 이해 (원광대 김정희 교수) △4월 21일: 중앙아시아 조각과 한국(이화여대 임영애 박사) △4월 28일: 분청사기의 이해(김영원 국립공주박물관장)

「메아리」 음반 발표

모교 노래 동아리 「메아리」가 CD음반 「A Tribute to 1977~1996」을 발표했다.

「메아리」에서 활동했던 77학년부터 98학년까지 참여하여 만



든 이번 음반은 「메아리」 결성 20주년을 기념해 이미 발표됐거나 공연했던 노래들을 모아 다시 불렀으며, 시중에서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1년간의 작업 끝에 발표한 이번 음반에는 대학가에서 애창돼 온 「대결」, 「타는 목마름으로」, 「그날이 오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등이 수록됐으며, 20여년간 민중가요 보급에 힘써 온 「메아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문의: 케이엠뮤직 안정일 3441-2189) (變)

선배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1. 모교 학생식당 식사질 향상을 위한 출연 안내

하루 평균 8천여명의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식당 식사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연간 4억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루 세끼를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가난한 자취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문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을 출연해주신 분에게는 시식용 식권 10매를 우송해드리며 출연자의 이름을 식당벽에 각인해 놓을 예정입니다.

2. 학생 기숙사 집기 교체를 위한 출연 안내

개사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집기를 교체했으나 여전히 노후된 집기가 많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어 기숙사의 이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책상, 의자, 옷장, 목재침대, 매트리스 등을 교체하는데 16억원이 소요됩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출연해주시면 출연하신 금액에 해당하는 집기에 출연자의 이름을 각인하여 감사의 뜻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3. 출연 방법

농협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079-17-000136,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신후 후원 대상과 인적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4. 안내 및 연락처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전화: 871-8146, 880-5026 팩스: 872-4149)

정년퇴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2명이 지난 2월 27일 정년퇴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金學圭교수·중문학

중국어 교류에 중추적 역할

34년 충북 충주에서 출생한 金學圭교수는 56년 모교 문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중국문학사에 있어서의 고대와 근대」 등 77편의 논문과 「中國文學史」, 「中國歷代詩歌選」, 「大學·中庸」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金교수는 한국중국어문학회장, 한국중국어학회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중국어학회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 언어학계 새 기틀 마련

33년 충남 아산 출생인 成百仁교수는 52년 문리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81년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부임, 만주·통구어사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활동에 주력하면서 「만주어 음운론 연구」, 「한국어 계통 연구의 현상과 과제」 등의 저서와 「만주어 음운사 연구를 위하여」, 「한청문감에 대하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 언어학계의 발전에 힘쓴 成교수는 재직중 진단학회장, 한국언어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成百仁교수·언어학



姜萬植교수·생물학

세포분화연구의 새 장 열어

33년 황해도 출생인 姜萬植교수는 55년 문리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72년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신경세포생리학」을 위시한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姜교수는 재직중 한국동물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재단이 지정한 우수연구센터인 세포분화연구센터 소장을 맡으며 한국의 세포분화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자동차공학 분야 활로 개척

33년 평양에서 출생한 金應瑞교수는 58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 90년 동경공업대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金교수는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디젤 차량의 입자상 물질 저감에 관한 연구활동에 주력했으며, 「자동차 기술인기관」 등 12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재직중에는 한국자동차공학회를 역임했으며 현재 FISITA(세계 자동차 학술단체연합회)이사와 서울 2000 FISITA 학술 대회장을 맡고 있다.



金應瑞교수·기계공학



羅塔俊교수·응용생물화학

식물병리학 연구의 일인자

33년 황해도 금천에서 출생한 羅塔俊교수는 57년 농과대학 농생물학과를 졸업, 73년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한 羅교수는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식물병에 관한 연구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수목병리학」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전염경로규명」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羅교수는 재직중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마이코플라스마학회 등을 역임했다.

자연과학자의 새 면모 보여

34년 경남 함안 출생인 趙鏞涉교수는 58년 농과대학 농생물학과를 졸업, 70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趙교수는 62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해 식물병리학 분야에서 세균성 식물병학 연구에 전념했으며 국내 최초로 식물세균병학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재직중에는 한국식물보호학회, 한국식물병리학회, 대한민국 한림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모교 농과대학장, 부총장 등을 맡으며 식물병리학계에 크게 공헌했다.



趙鏞涉교수·응용생물화학



李啓瑚교수·식품공학

1백40여편 논문 모두 각광

33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한 李啓瑚교수는 56년 농과대학 농화학부를 졸업, 69년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6년 농대 농화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李교수는 식품미생물학, 발효화학, 발효공학 등의 연구활동에 전념하며 「식품위생학」, 「응용미생물학」, 「미생물의 산업적 이용」 등의 저서와 1백4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李교수는 한국산업미생물학회, 한국식품과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내 조경학 발전 기초 다져

34년 경기도 평택 출생인 安建鏞교수는 56년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 73년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安교수는 63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조경수목 등에 관한 연구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임학개론」, 「공장조경」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재직중에는 한국조경학회 등을 역임했으며 건설교통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조경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安建鏞교수·조경학



宋海均교수·농업교육학

농촌 청소년 활동에 큰 기여

34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한 宋海均교수는 56년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 71년 미국 일리노이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3년 모교 농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宋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교육의 정착과 농촌발전을 위해 한국영농학생회 전국연합회 창설하는 등 많은 농촌청소년 지도 활동을 전개, 농촌청소년 활동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다.

宋교수는 재직중 한국농업교육학회, 중앙교육심의회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 조각의 위상 재정립해

34년 서울에서 출생한 崔義淳교수는 57년 모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 63년 대학원에서 미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65년 모교 미술대학 조소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崔교수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우수한 전시회 운영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조각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나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또한 많은 후진 조각가를 배출하는 등 한국 현대조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崔義淳교수·조소



李政成교수·
지구과학교육

원자력·화력발전 사업 주도

33년 인천 출생인 李政成교수는 58년 문리대 지질학과를 졸업, 74년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한 李교수는 「운석학의 연구」 등 4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21세기의 새로운 미래 연료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스 하이드라이트에 대한 연구와 홍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李교수는 재직중 한국자원연구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및 화력발전 건설사업 등 관련 산업계에 많은 공헌을 했다.



成在基교수·수의학

수의방사선학 분야의 개척자

33년 경북 영주 출생인 成在基교수는 59년 수의과대학을 졸업, 73년 대학원에서 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成교수는 62년 모교 수의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소동물 방사선 진단학」 등 3편의 저서와 70여편의 수의 방사선학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수의학 분야의 연구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재직중에는 한국임상수의학학회, 대한수의학학회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모교 수의과대학 학생담당학장보, 부속 동물병원장을 맡으며 모교발전에 공헌했다.



金洛斗교수·약학

암연구 및 신약개발에 힘써

33년 충북 충청군 출생인 金洛斗교수는 57년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 72년 캐나다 마니토바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金교수는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순환기 약물학 및 약물대사에 관한 연구 및 일산화질소에 관한 연구 등에 주력했으며 「약물학」 등 여러 권의 저서와 「새로운 암 예방인 2-아릴치오피라진의 간암 예방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재직중에는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약리학회 등을 역임한 바 있다.



徐廷勳교수·치의학

치과교정학 연구의 권위자

33년 경기도 송탄 출생인 徐廷勳교수는 58년 모교 치과대학을 졸업, 67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徐교수는 65년 모교 치과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한국 치과교정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수술-교정치료학」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재직중에는 대한치과교정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모교 치과병원 교정과장, 치과교정학교실 주임교수를 맡아 치과교정학과 임상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金正根교수·보건학

보건학·인류생태학의 대가

33년 경남 진주 출생인 金正根교수는 60년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 71년 일본 동경대학교 의학부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金교수는 69년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부임해 인구보건 및 인류생태학에 관한 연구활동에 전념하며 한국 보건학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저서로는 「人口分析概論」, 「韓國人의 死因分析」 등이 있으며 「在日 朝鮮人의 人口學의 研究」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재직중에는 한국보건통계학회, 한국인구학회 등을 역임한 바 있다.



池亨浚교수·
천연물과화연구소

「생약·한약재 규격집」 선보여

33년 서울 출생인 池亨浚교수는 57년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 74년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池교수는 72년 모교 생약연구소 조교수로 부임한 후 약용작물자원 및 약용식물조직배양에 의한 약용물질생산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면서 「생약·한약재 규격집」 등 여러 권의 저서와 「참당귀의 성분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 한국 생약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재직중에는 한국생약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모교 생약연구소장, 자원식물시험장을 맡아 자원식물의 수집 및 시험장의 재건 등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한국 정치학계 새 시각 제시

33년 서울에서 출생한 李容弼교수는 57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74년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 사대 국민윤리교육과에 전임강사로 부임한 李교수는 현대이데올로기론, 민주주의론 등의 강의와 연구를 통해 후학 양성과 한국 정치학계 및 한국체계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재직중에는 국제체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체계연구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기초수의학의 산 증인

34년 강원도 원주에서 출생한 李俊燮교수는 58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를 졸업, 79년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8년 농대 전임강사로 부임한 李교수는 수의조직학분야 연구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유독성 식물유에 중독된 실험동물 간장 병변의 병리조직학적 관찰」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李교수는 재직중 대한수의학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써왔다.



음악에 대한 열정 몸소 실천

34년 서울에서 출생한 金正吉교수는 62년 모교 음대를 졸업, 72년 독일 하노버 음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음악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金교수는 각종 기록, 홍보영화, 행사음악, 시그널 음악의 작곡 등 순수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金교수는 재직중 '88 서울올림픽 음악감독,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창악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시아작곡연맹 부회장, 한국작곡가협회 부회장, 한국 청년음악연맹 이사로 활동하면서 국내 악단에 많은 기여를 했다.



치의학 발전에 구심적 역할

33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한 劉東洙교수는 56년 치과대학 치의학과를 졸업, 66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한 劉교수는 방사선생물학 분야의 연구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다수의 저서와 「X선 조사가 상아기질형성에 미치는 영향」, 「하악각의 연령적 변화」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劉교수는 재직중 대한악안면방사선학회, 공작치과의사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환경위생학회 등 창설

33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한 鄭文植교수는 59년 문리대 화학과를 졸업, 80년 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보건대학원 전임강사로 부임한 鄭교수는 환경보건학과 대기오염관리 및 고체폐기물에 관한 강의와 연구에 주력하면서 우리나라 환경개선사업에 기여했다.

鄭교수는 재직중 한국환경위생학회를 창설했으며 한국 학교보건학회, 아시아·태평양보건학협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제환경학술지 부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환경논문의 수준향상에 크게 노력했다.



민간약정보 모아 출판하기도

33년 전북에서 출생한 韓秉勳교수는 56년 약학대학을 졸업, 68년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 생약연구소 조교수로 부임한 韓교수는 천연물의 생물활성 성분에 대한 화학 및 생화학적 연구로 2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40여회에 걸친 각종 국제학술회의에서 강연하는 등 천연물과학 분야의 학문발전 및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했다.

韓교수는 재직중 대한약사회 부회장, 한국생화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종신회원으로 관련학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韓秉勳교수·
천연물과화연구소

문헌

新刊

■ 기초주의 교육학

—韓基彦 著



모교 명예 교수인 韓基彦(49년 師大卒) 동문이 기초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이념·과정, 교육적 인간상 등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과 개혁의 조화를 통해 보다 현명한 인간 형성의 예지를 터득하여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학지사刊> 값13,000원

■ 새로운 여성의 길

—金蕙卿 著



기초주의 연구원 이사장인 金蕙卿(52년 師大卒) 동문이 고회기념 문집을 펴냈다. 이 책에는 여성교육과 인간교육에 대한 金동문의 사상과 함께 남편(韓基彦동문), 자녀, 사위, 며느리, 손주들의 사랑스런 글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기초주의연구원刊>

■ 사진—시간의

아름다운 풍경

—韓靜湜 著



중앙대 사진학과 교수인 韓靜湜(59년 師大卒) 동문이 일반인들에게 사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도움서를 펴냈다. 50편의 사진작품과 더불어 평소 집필해온 韓동문의 담백한 글들이 재미를 더해준다. <열화당刊> 값10,000원

■ 國際關係理論

—李相禹 著



신아세아 질서연구회 회장인 李相禹(61년 法大卒·서강대 교수·본회 부회장) 동문이 국가간의 갈등원인과 질서유지를 주제로 국제정세의 이해를 돕는 이론들의 해설서를 펴냈다.

국제정치현상의 과학적 접근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리해 놓아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영사刊> 값22,000원

展示

■ 말씀 그림전

—4월 14일 종로갤러리

한국여류화가회 회원인 金載姬(60년 美大卒) 동문이 낙산교회 창립15주년 기념으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작품전을 갖는다. (전시문의: 종로갤러리 737-0326) (變)

동문의 소리

大觀小察의

慧眼을 갖자



IMF이후 구조조정이나 빅딜이나 매일같이 정부 개혁안들이 신문지상에 발표되고나면 의례 그에 대한 찬반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업협정 등 요즈음 정부정책을 보면 모두 현실 상황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우선 마음만 앞서 미래지향적 이상에만 추구하여 사회 전체 구조와 기능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능동적으로 한 발 앞서 가려는 미래 예측적 사고에서 개혁안을 수용하고 동참하며 시행하려는 의지가 빈약한 기득권 세력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그럴수록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서로 조율을 기하고 일선현장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식·정보 경쟁시대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국민이 합의하는 독창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개혁」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싶다.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각 방면에 걸쳐 전반의

개혁이 시급하고 빨리 수술을 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싶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크고 멀리 보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혜안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丁靑燮(57년 師大卒)북경어문학회 원장

정보의 「해득력」이

중요하다



흔히 「정보가 힘」이라고들 말한다. 「정보화」, 「정보사회」, 「정보기술」 등 정보를 앞세운 단어들은 새로운 첨단산업의 상징어처럼 위세를 떨친다.

나는 시사주간지 기자로 더욱이 정보통신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그러한 정보 신봉자들을 많이 만난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21세기의 재화는 정보다」 「21세기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 끊임없이 화려한 영상을 내보내는 TV, 길거리의 광고판, 무선호출기, 무선전화기, 전자우편, 인터넷, PC통신... 정말 내가 정보 빈곤에 시달리는 것일까? 나는 가끔 「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을 떠올리곤 한다.

나는 이것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한다. 문제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나 「신선도」(최신 정보는 거의 예외없이 좋은 것으로 대접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과 일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냉철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Literacy」라는 단어가 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文盲」이라고 부른다. 21세기에는 이 단어에 새로운 뜻이 추가될지도 모른다.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 말이다.

「量보다 質이 더 중요하다」라는 옛 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金相顯(89년 農大卒)동아일보 뉴스플러스 부 기자

인터넷 자유게시판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nua.or.kr>) 자유게시판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반갑군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김우진(77년 音大卒)
kwj@chonnam.ac.kr

동창회 홈페이지가 생겨서 좋군요. 이곳을 통해 반가운 소식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99년 3월에 이재경 동문(73학번, 77년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이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가야금 전공교수로 발령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해 주시길...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98년 12월 5일~99년 1월 27일 · 一般: 98년 12월 1일~99년 1월 27일〉

회 장 단

▲부회장 李俊鎔 = 1백만원
▲부회장 朴炳潤 = 1백만원

관 악 회

▲이 사 朱鎮吁 = 30만원
▲감 사 朴柱鐸 = 30만원

상 임 이 사

▲崔永喆 문리대동창회장 = 20만원

이 사

◇家政大學

▲박현순⁷³ ▲정영선⁷³

◇看護大學

▲김금순⁷² ▲김매자⁷⁴ ▲신현주⁷⁶

◇經營大學

▲권기출⁷⁶

◇工科大学

▲곽영필⁶⁰ ▲김기문⁶¹ ▲김도삼⁶¹ ▲김명년⁵⁷
▲김봉일⁶⁴ ▲김연식⁶⁰ ▲김영남⁶⁰ ▲김천옥⁵⁹
▲김현진⁷⁰ ▲김형진⁵⁵ ▲김홍식⁶⁰ ▲목영일⁶⁰
▲박용승⁵⁸ ▲박성기⁶⁰ ▲송재근⁶¹ ▲유상희⁶⁴
▲윤동실⁵⁶ ▲이광노⁶¹ ▲이시우⁷¹ ▲이정무⁷²
▲이재대⁶³ ▲이충수⁵⁸ ▲이현구⁶⁴ ▲임정명⁶²
▲장기옥⁵⁸ ▲정병일⁵⁴ ▲정영식⁶¹ ▲정태웅⁷⁶
▲조정호⁶⁹ ▲한건우⁵⁹ ▲한형수⁶⁰

◇農科大学

▲김상호⁶⁰ ▲김일봉⁷² ▲김종옥⁷³ ▲변종훈⁵⁹
▲이보식⁶² ▲이택원⁶⁶

◇文理科大學

▲고석운⁵⁰ ▲김준수⁵⁵ ▲김희상⁷³ ▲노미혜⁶⁰
▲도준호⁶⁵ ▲박 실⁶³ ▲박윤경⁶⁰ ▲박한상⁶⁴
▲손대연⁵⁶ ▲손형진⁵⁵ ▲송한호⁶⁰ ▲오근식⁷¹
▲오완영⁶⁵ ▲윤하정⁷¹ ▲은무일⁶⁰ ▲이갑주⁶²
▲이수용⁶⁷ ▲임희섭⁵⁹ ▲정조영⁶⁴ ▲최병근⁷⁵
▲최병민⁷⁵ ▲한영성⁶³

◇美術大學

▲윤형규⁶⁰ ▲임홍순⁶⁴ ▲전 준⁶⁶

◇法科大学

▲강구현⁷⁷ ▲강익엽⁶⁹ ▲고명운⁵⁹ ▲김기춘⁶²
▲김명종⁶⁵ ▲김영기⁵³ ▲김영훈⁵⁸ ▲김재하⁶⁶
▲김종복⁷¹ ▲김주완⁶⁰ ▲김현채⁶¹ ▲나정욱⁶⁴
▲박석규⁶⁹ ▲박윤환⁶¹ ▲박종성⁷⁷ ▲서남수⁶⁵
▲신화중⁷⁹ ▲심훈중⁶⁰ ▲양희영⁵⁵ ▲오영수⁵⁵
▲오태환⁵⁷ ▲우익원⁶³ ▲유덕택⁵⁸ ▲윤경희⁶⁹
▲이경하⁶⁸ ▲이상문⁶⁷ ▲이상하⁶³ ▲이재창⁶⁰
▲이정환⁷⁵ ▲임종훈⁷⁷ ▲정귀호⁶³ ▲정기영⁵⁵
▲정배근⁶⁰ ▲조주순⁶⁶ ▲최민립⁵⁴ ▲최병학⁶⁵
▲최중철⁷⁴ ▲최홍건⁶⁶ ▲하 옥⁷³ ▲한승희⁶¹
▲허규철⁶⁷ ▲황규정⁶²

◇師範大學

▲강영삼⁶⁰ ▲곽후섭⁵⁸ ▲김덕순⁵³ ▲김윤태⁶⁰
▲김충언⁶³ ▲박남기⁵⁵ ▲박승재⁵⁹ ▲박찬도⁶²

▲이 찬⁵¹ ▲이 형⁶⁴ ▲이인규⁵⁵ ▲이춘산⁷⁰
▲장상곤⁵⁵ ▲전성택⁵⁵ ▲전용근⁷³ ▲조규삼⁵⁴
▲한도연⁵³ ▲홍정식⁵⁵

◇商科大學

▲권태인⁵⁴ ▲김동수⁵⁸ ▲김두산⁵⁸ ▲김승정⁶⁴
▲김용기⁶² ▲김용요⁵⁹ ▲김용태⁵⁷ ▲김재수⁶⁴
▲김정구⁷⁶ ▲김창권⁶⁰ ▲남이현⁶⁷ ▲민병윤⁵⁵
▲박명식⁶³ ▲박병렬⁵⁷ ▲심재선⁶⁴ ▲이일쇄⁶⁵
▲이종순⁶⁶ ▲이종완⁶⁰ ▲이창일⁶⁰ ▲이택섭⁵⁵
▲임종수⁶⁶ ▲진철평⁶⁰ ▲허성길⁶⁴ ▲홍승희⁶¹
▲황원오⁶⁰

◇獸醫科大學

▲김홍욱⁶⁸ ▲이기주⁶⁷ ▲조영웅⁶⁷

◇藥學大學

▲김영남⁶⁶ ▲김영전⁵³ ▲박용문⁶⁰ ▲송상섭⁷⁵
▲오연준⁶⁰ ▲유재은⁶⁵ ▲이윤재⁶⁵ ▲이정준⁷²
▲이해정⁴⁹ ▲임경택⁵⁷ ▲전용동⁴⁷ ▲한병련⁷²
▲홍기정⁶⁴

◇音樂大學

▲김봉임⁵⁹

◇醫科大學

▲김광희⁶¹ ▲김명주⁶² ▲김영덕⁶⁵ ▲김영룡⁵⁵
▲김예희⁵⁹ ▲평국영⁷⁴ ▲박대관⁶¹ ▲박재갑⁷³
▲변종화⁵⁶ ▲송만준⁵⁷ ▲송익훈⁵⁴ ▲송정삼⁶⁷
▲양대현⁷⁶ ▲유경상⁷⁰ ▲이근식⁶⁴ ▲이명덕⁷³
▲이상완⁶¹ ▲조두영⁶¹ ▲조병규⁷⁰

◇齒科大學

▲김계종⁶⁶ ▲김계종⁶⁶ ▲김낙형⁶³ ▲김종두⁵⁹
▲남수현⁷⁷ ▲노태래⁶⁹ ▲민병일⁶⁵ ▲박종민⁶⁶
▲방달호⁶³ ▲성백근⁷¹ ▲임용준⁷² ▲장지상⁶⁵
▲전국봉⁶¹ ▲정상주⁶²

◇大學院

▲문재한⁶² ▲이종운⁷⁹ ▲황효섭⁶⁶

◇經營大學院

▲김광득⁷⁰ ▲문국현⁷⁷ ▲안대륜⁶⁷ ▲양승현⁷¹

◇保健大學院

▲김경자⁷²

◇新聞大學院

▲안성근⁷³

◇行政大學院

▲노석호⁷⁷ ▲문화갑⁶⁶ ▲백상승⁷¹ ▲정상천⁶⁴
▲황두영⁶⁰

◇環境大學院

▲권 완⁷⁸

◇최고산업전략과정

▲최재영⁷¹

일 반

◇人文大學

▲강기동⁶³ ▲강석봉⁶⁶ ▲권오걸⁶² ▲김병욱⁶³
▲김병철⁶⁰ ▲김영기⁷⁶ ▲김인배⁷⁶ ▲김홍기⁶⁵
▲김희광⁶² ▲노지원⁶⁷ ▲문철영⁶² ▲박찬수⁶⁶
▲박창기⁶⁵ ▲박홍로⁶⁷ ▲손정희⁶⁴ ▲송세영⁶¹

▲신철수⁶² ▲심화섭⁶⁵ ▲안미정⁶⁰ ▲안병욱⁶⁰
▲안성조⁶⁵ ▲염성영⁶⁰ ▲예미린⁶⁵ ▲유석형⁷⁸
▲윤옥준⁶⁰ ▲이광희⁶³ ▲이상우⁷⁷ ▲이옥정⁶⁵
▲이왕돈⁷⁹ ▲이현배⁶⁰ ▲이화자⁶⁷ ▲임승웅⁷⁶
▲전찬환⁷⁸ ▲정인상⁷⁸ ▲조성무⁶⁵ ▲조은영⁶⁰
▲차미경⁶⁰ ▲최승환⁶⁰ ▲최영욱⁷⁷ ▲최은미⁶¹
▲최인진⁶⁰ ▲하동수⁶⁰ ▲현무환⁶⁰

◇社會科學大學

▲강민수⁶² ▲권성민⁶⁰ ▲김 암⁶⁰ ▲김관중⁶⁸
▲김동중⁶⁷ ▲김병룡⁷⁷ ▲김성진⁵⁵ ▲김성철⁶²
▲김용성⁶⁹ ▲김용수⁶⁰ ▲김용하⁶¹ ▲김진구⁶⁷
▲김찬규⁶³ ▲김철수⁶¹ ▲김철수⁶¹ ▲김한상⁶⁴
▲김현중⁶³ ▲김형민⁶⁰ ▲김홍수⁶⁹ ▲남도영⁶⁵
▲남준희⁶⁹ ▲류동화⁶⁰ ▲문재관⁶¹ ▲박 찬⁷⁹
▲박근제⁷⁶ ▲박종현⁶⁷ ▲박종희⁶⁵ ▲박재준⁶²
▲서왕진⁶⁹ ▲서의곤⁶⁰ ▲서이중⁶⁴ ▲송길모⁶⁹
▲송상우⁶⁰ ▲송상종⁶⁰ ▲송석준⁶⁷ ▲송정용⁶⁸
▲안순권⁶¹ ▲안창모⁶⁰ ▲양호승⁷⁸ ▲연승호⁶¹
▲오재영⁶⁸ ▲왕윤종⁶⁵ ▲우병훈⁶⁰ ▲우영수⁶⁷
▲우천식⁶² ▲우현진⁶⁴ ▲유시량⁶⁰ ▲유영규⁶⁸
▲유종열⁷⁸ ▲윤 현⁶⁰ ▲윤선기⁶⁷ ▲윤용니⁶³
▲이 석⁶² ▲이동욱⁶⁰ ▲이두식⁷⁶ ▲이연주⁶⁸
▲이상훈⁶³ ▲이승근⁶⁰ ▲이인우⁶¹ ▲이인재⁶⁵
▲이재협⁶⁸ ▲이종범⁷⁰ ▲이종선⁶⁰ ▲이종현⁷⁷
▲이창수⁶⁸ ▲이천립⁶¹ ▲이춘규⁶⁰ ▲이해수⁶⁰
▲이해용⁶⁸ ▲장덕주⁷³ ▲정 낙⁷⁸ ▲정 도⁶²
▲정두언⁶⁰ ▲정일동⁶⁴ ▲정태호⁶⁰ ▲조석현⁶⁷
▲조성익⁶⁴ ▲조영일⁶² ▲조현일⁶⁷ ▲조혜영⁶⁷
▲주진혁⁶¹ ▲진병태⁶⁷ ▲최상규⁶⁶ ▲최삼목⁶⁹
▲최순길⁶⁸ ▲최진목⁶⁰ ▲최현우⁶⁰ ▲최홍운⁶⁴
▲한병호⁷⁷ ▲한성룡⁶⁸ ▲홍석준⁷⁷ ▲황진택⁶⁰
▲황대연⁶⁰

◇自然科學大學

▲강위창⁶³ ▲권경걸⁶⁰ ▲김민지⁶⁴ ▲김상균⁶⁸
▲김선철⁶⁹ ▲문정원⁶⁰ ▲박기석⁶⁰ ▲박진희⁶⁴
▲백문구⁶⁷ ▲송용길⁶² ▲송기호⁶³ ▲신현철⁶⁴
▲심준섭⁶³ ▲염성용⁶⁴ ▲유석동⁶⁰ ▲이 건⁷⁷
▲이병재⁷⁸ ▲이승구⁶³ ▲이승용⁶⁰ ▲이승환⁶³
▲이종규⁶⁵ ▲이창복⁷⁶ ▲장경우⁶² ▲장경일⁶¹
▲정익교⁷⁶ ▲조석준⁷⁷ ▲조창제⁶⁰ ▲조화제⁶⁰
▲최진혁⁷⁸

◇家政大學

▲김명하⁶³ ▲김순여⁵⁹ ▲김순오⁵⁹ ▲김지희⁶⁷
▲박인지⁶⁶ ▲송운주⁵⁵ ▲신귀철⁶² ▲심용희⁶²
▲오명숙⁷⁴ ▲유옥희⁶¹ ▲이규진⁶² ▲이창배⁶¹
▲이창숙⁶³ ▲정광옥⁷³ ▲정해자⁶⁵ ▲정해진⁶⁸
▲조성교⁷³ ▲차진아⁶⁰ ▲최민자⁶⁸ ▲최은희⁶³
▲홍경자⁶²

◇看護大學

▲김경수⁷⁴ ▲남명화⁷³ ▲송경자⁶⁰ ▲우경선⁶¹
▲이은이⁵⁵ ▲이은숙⁷⁵ ▲정윤남⁷⁴ ▲조은주⁶³
▲조인에⁷¹ ▲최완희⁶⁸ ▲한영자⁷⁰ ▲허숙경⁷⁸
▲홍미나⁶²

◇經營大學

▲강중구⁶⁷ ▲고승현⁶² ▲국기호⁶³ ▲권태근⁶²
▲김동수⁶⁵ ▲김선규⁶⁴ ▲김수환⁶⁰ ▲김승규⁷³
▲김원재⁶⁹ ▲김재현⁶² ▲김종문⁶⁰ ▲김철식⁶⁹
▲김형준⁶⁰ ▲류주현⁶⁴ ▲마재열⁶⁹ ▲민복식⁶⁴
▲박상진⁶⁹ ▲박성훈⁶² ▲박주선⁶⁰ ▲박창섭⁶²
▲반용음⁶¹ ▲배택영⁶¹ ▲서석형⁶⁰ ▲서원식⁷⁷
▲소현정⁶⁰ ▲송석진⁶⁷ ▲송요신⁶⁰ ▲안성진⁶²
▲양동빈⁶⁰ ▲양석훈⁶⁰ ▲오종문⁶⁰ ▲윤정환⁶⁸
▲윤태호⁶⁰ ▲이 원⁶⁷ ▲이권철⁶⁰ ▲이상석⁶²

▲이종명⁶³ ▲이현우⁶⁸ ▲이현철⁶⁷ ▲조용로⁶⁸
▲한희진⁶²

◇工科大学

▲강 형⁶² ▲강경호⁶⁵ ▲강관원⁶⁵ ▲강근백⁷⁶
▲강길건⁶⁶ ▲강다원⁶⁶ ▲강대성⁷⁶ ▲강대호⁶⁷
▲강석림⁶⁵ ▲강석호⁶¹ ▲강용식⁵⁵ ▲강우영⁶²
▲강효순⁶⁰ ▲고 진⁶⁴ ▲고광빈⁶⁶ ▲고병렬⁶⁴
▲고승구⁶⁰ ▲고준수⁷⁶ ▲공영식⁶³ ▲공인섭⁶²
▲곽경영⁶⁵ ▲곽수태⁶² ▲곽순섭⁷² ▲구석근⁶⁵
▲구정기⁷⁷ ▲구창용⁶⁴ ▲권 웅⁶¹ ▲권상철⁶⁵
▲권영두⁷⁴ ▲권영미⁶⁰ ▲기도형⁶⁷ ▲기승준⁶⁷
▲김강수⁷⁴ ▲김건희⁷³ ▲김경원⁶⁸ ▲김경일⁶⁷
▲김규택⁶⁹ ▲김기석⁶⁴ ▲김기세⁶⁰ ▲김기태⁶⁴
▲김달수⁶³ ▲김대영⁷³ ▲김도경⁶⁶ ▲김동원⁶⁸
▲김동진⁶⁶ ▲김두진⁶⁶ ▲김명호⁶¹ ▲김미희⁶¹
▲김민세⁶³ ▲김병현⁷⁸ ▲김상인⁷⁵ ▲김선재⁶⁶
▲김성대⁶⁸ ▲김성렬⁷⁷ ▲김성민⁶¹ ▲김성준⁷⁸
▲김성철⁶⁴ ▲김성환⁶⁰ ▲김순환⁶⁰ ▲김영동⁶²
▲김영삼⁶⁸ ▲김영준⁶⁴ ▲김영준⁶⁵ ▲김영현⁷⁹
▲김완희⁶⁶ ▲김용래⁶¹ ▲김용현⁶⁶ ▲김우재⁶⁷
▲김윤수⁷⁹ ▲김응진⁶⁹ ▲김익영⁶⁷ ▲김익홍⁷¹
▲김인근⁶⁶ ▲김인선⁶⁰ ▲김재민⁶⁹ ▲김재환⁶⁵
▲김재환⁶⁵ ▲김정태⁶⁰ ▲김정하⁶¹ ▲김종열⁶³
▲김종원⁶⁵ ▲김종호⁷⁴ ▲김주영⁶⁹ ▲김주철⁶⁴
▲김지영⁶⁶ ▲김지환⁶² ▲김진준⁶⁰ ▲김진후⁷⁹
▲김창경⁶⁵ ▲김창규⁶⁰ ▲김춘길⁶² ▲김춘석⁶⁰
▲김춘우⁶³ ▲김춘자⁶³ ▲김충공⁶⁴ ▲김충남⁶⁶
▲김풍오⁷² ▲김화준⁷⁰ ▲김한규⁷³ ▲김한덕⁶⁷
▲김한술⁶² ▲김형중⁶⁰ ▲김형주⁶⁷ ▲나종태⁷¹
▲남기환⁵³ ▲노홍규⁷⁰ ▲류기수⁶² ▲류인수⁶⁵
▲마석일⁶¹ ▲문근주⁶⁷ ▲문인섭⁶⁹ ▲문재창⁷³
▲문정삼⁶⁷ ▲문재춘⁶⁰ ▲문화철⁷² ▲민병선⁶⁰
▲박경배⁷⁴ ▲박기홍⁶⁰ ▲박노철⁷⁸ ▲박대원⁷⁶
▲박영호⁷² ▲박유준⁶⁰ ▲박장영⁶⁴ ▲박종길⁶⁹
▲박지훈⁶⁵ ▲박태희⁶⁰ ▲박태호⁶⁰ ▲박홍규⁶¹
▲박홍춘⁷³ ▲박희수⁶⁵ ▲배선태⁶⁰ ▲배영수⁷⁷
▲배원근⁶⁵ ▲배종서⁶⁸ ▲백문홍⁶² ▲백선민⁷³
▲백영현⁷¹ ▲백용현⁶² ▲백정기⁷⁸ ▲백학기⁶⁵
▲백형수⁶⁵ ▲백호봉⁷⁴ ▲변재환⁶⁷ ▲서동길⁶⁷
▲서용성⁶⁹ ▲서재준⁶¹ ▲서주원⁶¹ ▲서진호⁷⁶
▲서홍원⁶¹ ▲성낙현⁷¹ ▲성수영⁶⁰ ▲성원용⁶⁰
▲성하명⁶³ ▲송기현⁶⁰ ▲송명기⁷⁶ ▲송명환⁶²
▲손상원⁷⁷ ▲손석기⁷⁶ ▲손태운⁶¹ ▲손효석⁶²
▲신경식⁶⁵ ▲신승수⁶⁵ ▲신원동⁶⁰ ▲신운수⁶⁶
▲신철영⁷⁸ ▲신대명⁶⁰ ▲심영섭⁶⁰ ▲심재건⁷⁷
▲심종인⁶³ ▲안 섭⁶³ ▲안덕주⁶¹ ▲안동민⁷²
▲안용수⁷⁷ ▲안학수⁵⁵ ▲안근수⁶² ▲양봉준⁶⁴
▲양문근⁶³ ▲양해안⁷⁴ ▲어 준⁶⁰ ▲염진섭⁶²
▲염태우⁶⁷ ▲여영환⁶⁰ ▲염희택⁶⁴ ▲오상호⁶⁵
▲오성근⁶⁰ ▲오시영⁶⁸ ▲오장환⁶⁶ ▲오치재⁷⁴
▲유인상⁶⁰ ▲유종선⁶¹ ▲유하영⁷⁴ ▲윤 백⁶²
▲윤경우⁶⁰ ▲윤국로⁷¹ ▲윤석호⁶⁵ ▲윤용석⁶¹
▲윤원영⁶² ▲윤태식⁶⁴ ▲윤희태⁶⁰ ▲이 석⁶²
▲이 훈⁶⁶ ▲이건이⁶⁷ ▲이광성⁷⁰ ▲이근용⁶²
▲이남규⁷³ ▲이남순⁷⁶ ▲이남식⁷⁰ ▲이남진⁷⁶
▲이달호⁶¹ ▲이덕표⁶⁴ ▲이동규⁶⁰ ▲이두식⁶⁰
▲이두원⁶⁰ ▲이명규⁶⁰ ▲이명천⁶⁰ ▲이병록⁶⁵
▲이병수⁶² ▲이봉환⁷² ▲이상돈⁶⁴ ▲이상운⁷⁶
▲이상익⁶⁴ ▲이상조⁶¹ ▲이상철⁶¹ ▲이선규⁶⁰
▲이선영⁶⁵ ▲이성근⁶¹ ▲이성오⁶² ▲이성우⁶⁵
▲이성우⁶⁸ ▲이소민⁶⁵ ▲이승관⁷¹ ▲이승기⁷⁶
▲이승동⁶⁰ ▲이승무⁶⁵ ▲이시우⁷⁴ ▲이완식⁶⁵
▲이완태⁶⁵ ▲이용복⁶¹ ▲이우현⁶⁵ ▲이원복⁶⁵
▲이응복⁶² ▲이정옥⁶⁵ ▲이재풍⁷⁰ ▲이재현⁷¹
▲이정규⁶⁶ ▲이정명⁶⁴ ▲이정진⁶¹ ▲이종근⁶²
▲이종태⁶² ▲이종락⁷⁴ ▲이종수⁶⁶ ▲이종원⁶⁶

▲이준상⁷¹ ▲이창배⁶⁵ ▲이창복⁶¹ ▲이철원⁶⁴
▲이춘길⁶⁵ ▲이한배⁶² ▲이호연⁶⁵ ▲이희성⁷⁸
▲임 용⁶¹ ▲임기철⁷³ ▲임무산⁷⁴ ▲임병진⁶⁸
▲임성빈⁶⁶ ▲임재용⁶³ ▲임주섭⁶⁷ ▲임주일⁶⁸
▲임창복⁷⁰ ▲임형택⁶⁰ ▲장광영⁶³ ▲장무호⁷⁵
▲장일환⁶⁵ ▲장종규⁶⁵ ▲전종용⁶⁴ ▲전종환⁶⁷
▲전홍우⁷⁴ ▲정경남⁷⁸ ▲정교성⁶⁰ ▲정균양⁷²
▲정대식⁶⁵ ▲정대진⁶⁰ ▲정동철⁶² ▲정병식⁶⁷
▲정상열⁶⁰ ▲정세영⁶⁰ ▲정신교⁶⁰ ▲정

▲이만우⁵⁷ ▲이명규⁶² ▲이병철⁶² ▲이상화⁶⁶
▲이우연⁶⁸ ▲이지승⁶⁸ ▲이장우⁶¹ ▲이정숙⁵⁷
▲이준상⁷⁶ ▲이진욱⁶⁶ ▲이춘기⁵⁹ ▲이충희⁵⁸
▲이한국⁶⁵ ▲이효정⁷⁵ ▲인병선⁵⁴ ▲인오룡⁷⁴
▲임국래⁵⁸ ▲장국원⁶¹ ▲장병인⁷³ ▲장정행⁶⁷
▲장화자⁵⁵ ▲전명애⁶⁶ ▲정 남⁶⁴ ▲정 해⁵⁰
▲장미자⁷⁵ ▲정민희⁶⁶ ▲정주년⁶⁵ ▲장찬용⁵⁹
▲조기상⁶² ▲조요한⁶⁵ ▲조천식⁴⁵ ▲조현영⁶³
▲지경렬⁷⁵ ▲차희원⁶⁵ ▲최 혁⁶⁸ ▲최병서⁷⁵
▲최복식⁷³ ▲최인승⁶³ ▲최인일⁷⁰ ▲최정숙⁵⁷
▲한상복⁶³ ▲허 승⁶² ▲홍중용⁷² ▲황병연⁶⁴
▲황연익⁶¹ ▲황원섭⁶⁴

◇美術大學

▲고승태⁷⁰ ▲권경자⁶⁸ ▲권달술⁶⁶ ▲김서봉⁵⁴
▲김선엽⁶⁸ ▲김성희⁶⁸ ▲김신현⁶² ▲김영길⁷⁷
▲김익수⁶³ ▲김지열⁶⁶ ▲김전일⁷⁹ ▲김춘수⁸¹
▲김해원⁶⁰ ▲박상희⁶⁶ ▲박소영⁷⁷ ▲부수언⁶¹
▲서동화⁷⁹ ▲신태철⁶⁸ ▲안정연⁶⁹ ▲우영희⁸³
▲유 황⁶⁴ ▲유리지⁶⁵ ▲윤경선⁶⁹ ▲윤영출⁶⁶
▲윤형자⁶⁵ ▲이길룡⁶⁵ ▲이보형⁷³ ▲이은화⁷²
▲이중희⁷¹ ▲이호수⁷³ ▲장성란⁷⁰ ▲전명자⁵⁷
▲정영섭⁶⁶ ▲정정식⁶² ▲정지환⁶⁴ ▲최명룡⁷⁰
▲최상란⁶⁶ ▲현용순⁷²

◇法科大學

▲강성목⁵⁵ ▲강성욱⁶⁵ ▲강운기⁶¹ ▲강찬우⁸⁵
▲고병철⁶⁴ ▲고영준⁶⁵ ▲곽희열⁶¹ ▲권 성⁶⁶
▲권세진⁷⁶ ▲권영준⁶⁵ ▲김경원⁵⁴ ▲김경현⁵⁷
▲김고두⁷² ▲김기영⁶⁵ ▲김기완⁶⁴ ▲김도훈⁶⁶
▲김문상⁶⁵ ▲김병규⁷⁷ ▲김병룡⁶⁹ ▲김병욱⁷¹
▲김수길⁷⁷ ▲김순영⁶⁶ ▲김승목⁶⁷ ▲김영규⁶⁷
▲김영명⁶⁴ ▲김용한⁶³ ▲김월택⁶⁵ ▲김인만⁸⁵
▲김종건⁶⁵ ▲김종호⁶⁶ ▲김지욱⁷⁵ ▲김창지⁶⁰
▲김태성⁶⁶ ▲김태용⁶⁶ ▲김학현⁸⁰ ▲김현영⁶⁷
▲김현철⁶¹ ▲김형태⁶⁵ ▲김효종⁶⁵ ▲노병수⁸⁷
▲문백상⁶⁴ ▲문호철⁶⁸ ▲박원철⁷⁶ ▲박재태⁸⁵

▲박치영⁵⁹ ▲박희립⁶⁴ ▲박형남⁶² ▲방용구⁶⁸
▲변득수⁶⁷ ▲서성운⁶⁷ ▲서정석⁶¹ ▲서현진⁶⁴
▲석성환⁶⁵ ▲소진섭³⁷ ▲신양호⁶⁷ ▲신중대⁷²
▲신진식⁶² ▲신현직⁷⁷ ▲안성열⁶³ ▲안재식⁶²
▲양동신⁷² ▲양병호⁶⁰ ▲양정수⁶⁶ ▲양희열⁵⁹
▲염용철⁶⁰ ▲오성식⁵² ▲오세빈⁷² ▲원희룡⁶⁹
▲유민상⁴⁴ ▲유상순⁶⁰ ▲유성욱⁶⁸ ▲유창수⁷²
▲유치석⁶⁸ ▲윤석정⁷¹ ▲윤세문⁶⁹ ▲윤종혜⁵⁹
▲윤진영⁷⁴ ▲윤태방⁶⁴ ▲이강룡⁶⁶ ▲이경민⁶⁰
▲이광진⁶¹ ▲이근관⁶⁶ ▲이거창⁶⁰ ▲이무상⁸⁴
▲이병기⁷⁵ ▲이성덕⁷¹ ▲이성호⁶² ▲이세중⁵⁷
▲이순복⁶⁵ ▲이승철⁶⁵ ▲이영식⁴² ▲이용훈⁶⁰
▲이재순⁶¹ ▲이재천⁶⁶ ▲이종진⁴² ▲이진구⁷⁸
▲이창완⁶⁶ ▲이철신⁶⁴ ▲이춘성⁷⁰ ▲이호병⁷³
▲이홍훈⁶⁸ ▲임승순⁷⁷ ▲임종현⁶² ▲임학언⁷⁰
▲장민순⁶⁵ ▲장성수⁶⁵ ▲장용락⁶⁷ ▲전용희⁶⁵
▲정광진⁶³ ▲정기승⁷⁸ ▲정도출⁷² ▲정동원⁶⁵
▲정병천⁶⁰ ▲조경희⁶³ ▲조기천⁶⁰ ▲조병룡⁸³
▲조성서⁶⁷ ▲조영준⁶⁷ ▲조현수⁶² ▲지승원⁷²
▲천대승⁶⁶ ▲천대승⁶⁵ ▲최병모⁷¹ ▲최정덕⁶⁵
▲한 민⁶⁰ ▲한세권⁶⁵ ▲허진호⁶⁸ ▲홍동환⁶¹
▲홍순범⁶⁵ ▲황선담⁵³ ▲황환성⁶²

◇師範大學

▲강세중⁷³ ▲강승식⁶⁴ ▲강운선⁶⁹ ▲고영신⁶⁸
▲곽형기⁷⁵ ▲구본환⁷⁶ ▲구영주⁷⁶ ▲권한상⁶⁴
▲김경수⁶² ▲김경진⁷⁸ ▲김광준⁶⁷ ▲김광준⁶²
▲김규봉⁷⁶ ▲김기우⁶⁰ ▲김명수⁷⁵ ▲김명숙⁶²
▲김무홍⁶⁴ ▲김삼순⁶⁵ ▲김상태⁶⁶ ▲김상현⁶⁵
▲김석훈⁷⁰ ▲김성기⁷⁵ ▲김성식⁶¹ ▲김성호⁷⁴
▲김세철⁷⁷ ▲김안진⁷⁴ ▲김양희⁶⁹ ▲김익관⁷¹
▲김연성⁷⁵ ▲김영순⁶² ▲김영해⁷⁸ ▲김옥선⁶⁷
▲김옥아⁶⁷ ▲김용욱⁶⁷ ▲김원규⁷⁹ ▲김원배⁸⁹
▲김은전⁶⁷ ▲김재우⁶⁶ ▲김정아⁷⁰ ▲김종구⁷⁷
▲김종식⁷⁷ ▲김종환⁶⁷ ▲김종희⁶¹ ▲김종근⁷¹
▲김종호⁶⁶ ▲김진호⁶⁴ ▲김태갑⁶⁵ ▲김학준⁷⁹
▲김한중⁶⁴ ▲김형원⁷² ▲김현진⁶⁵ ▲김혜원⁶⁹

◇師範大學

▲김 인⁷⁸ ▲박광재⁶⁹ ▲정근화⁷⁰

◇商科大學

▲류태환⁶⁴

◇藥學大學

▲박태동⁶⁵

◇音樂大學

▲서은령⁸⁴

◇醫科大學

▲고건성⁷⁴

◇齒科大學

▲진우정⁷⁸ ▲한국영⁶⁰

◇保健大學院

▲이주열⁹³

◇최고경영자과정

▲곽순철⁹² ▲박영철⁴ ▲손수달⁹⁷

◇최고산업전략과정

▲이규수¹⁹ ▲전재홍¹⁷

▲김홍길⁷⁶ ▲김홍섭⁷⁷ ▲김희숙⁷² ▲나정환⁶⁸
▲남영로⁶⁴ ▲노효진⁵⁸ ▲목창수⁷³ ▲문용호⁶⁸
▲문정의⁶⁵ ▲민병철⁶⁶ ▲박경애⁶¹ ▲박경재⁶⁷
▲박대영⁶⁰ ▲박민선⁷⁸ ▲박병준⁶³ ▲박봉서⁶⁸
▲박성순⁶⁰ ▲박수일⁶⁶ ▲박희희⁷² ▲박용욱⁶⁶
▲박항숙⁶⁸ ▲박호순⁶³ ▲박희석⁷⁴ ▲배은재⁷⁰
▲백승권⁶⁸ ▲서 혁⁶⁹ ▲서갑수⁶⁰ ▲성태실⁶⁰
▲성하길⁶⁷ ▲소지현⁶⁹ ▲손병효⁶⁸ ▲손영민⁶⁰
▲송대량⁶⁴ ▲송재식⁶⁵ ▲신용철⁷¹ ▲안선준⁷⁰
▲안태근⁷² ▲오덕춘⁷² ▲오두환⁷³ ▲오성록⁶⁰
▲왕세균⁷² ▲유병석⁶⁴ ▲유영복⁶¹ ▲유영선⁶⁹
▲유완영⁷² ▲윤관희⁶² ▲윤규태⁷² ▲윤동혁⁶¹
▲윤영애⁷⁶ ▲윤태익⁶⁶ ▲윤희원⁷⁹ ▲이강준⁷⁰
▲이규량⁶⁸ ▲이금택⁶⁶ ▲이문자⁶⁷ ▲이석규⁷⁰
▲이세현⁶⁸ ▲이수익⁶⁵ ▲이수찬⁶⁵ ▲이순원⁶⁵
▲이연호⁶¹ ▲이영선⁷⁰ ▲이완섭⁷⁵ ▲이용우⁶⁹
▲이용현⁶⁷ ▲이우복⁶² ▲이운자⁶⁶ ▲이안규⁶⁵
▲이인내⁶⁶ ▲이인화⁶² ▲이종각⁷⁸ ▲이종근⁷⁰
▲이종숙⁶⁴ ▲이종철⁶⁰ ▲이태영⁶⁸ ▲이현택⁵⁷
▲이홍식⁷⁶ ▲이후영⁶⁶ ▲이희철⁶⁹ ▲임 혁⁶⁹
▲임창주⁶⁰ ▲장경희⁷⁴ ▲장문식⁷⁴ ▲장상철⁶⁴
▲장영익⁶¹ ▲장제훈⁷⁴ ▲전방근⁶¹ ▲전옥순⁴¹
▲전은선⁵¹ ▲정 열⁷⁶ ▲정광수⁷⁷ ▲정대용⁶⁸
▲정병철⁶⁰ ▲정상박⁶⁵ ▲정인형⁶⁶ ▲정일영⁶⁶
▲정정현⁶⁵ ▲정창권⁶⁵ ▲조경태⁶¹ ▲조동석⁶⁴
▲조용수⁶⁵ ▲조은진⁶⁹ ▲조항용⁶⁰ ▲조현익⁷⁸
▲주재범⁷⁶ ▲진창덕⁷⁴ ▲차양로⁶⁴ ▲차준영⁷⁹
▲최명재⁶⁰ ▲최병환⁷⁴ ▲최승권⁷⁹ ▲최영기⁶¹
▲최정임⁶⁰ ▲최종승⁷⁰ ▲한수인⁵⁷ ▲한예석⁶²
▲한주혁⁶⁵ ▲한주호⁶⁵ ▲한철우⁷¹ ▲한홍승⁶⁰
▲홍성관⁶⁰ ▲홍용표⁶⁵ ▲황상익⁶⁰

◇商科大學

▲곽지용⁶³ ▲곽대운⁷² ▲구하서⁶⁸ ▲권대욱⁶⁸
▲권학조⁶⁷ ▲김원진⁷⁶ ▲김이현⁶⁶ ▲김인건⁶¹
▲김재진⁶⁵ ▲김정환⁶⁵ ▲김종창⁶¹ ▲김종수⁷⁰
▲김창순⁶¹ ▲김태환⁷⁴ ▲김한오⁶⁷ ▲김현주⁶⁴
▲김희성⁷¹ ▲남금혁⁶⁴ ▲노태홍⁶⁹ ▲박무용⁶⁸
▲박문석⁶⁵ ▲박문식⁶⁶ ▲박병문⁶⁴ ▲박영도⁶⁴
▲박용선⁶⁶ ▲박진선⁶⁶ ▲서상달⁶⁶ ▲성상경⁷⁰
▲송무우⁶⁶ ▲안일성⁶⁴ ▲유인호⁶⁵ ▲육무수⁶⁷
▲육무수⁷¹ ▲은희철⁶⁴ ▲이광우⁶⁶ ▲이규찬⁶⁹
▲이남근⁷² ▲이동용⁶² ▲이무희⁶³ ▲이봉식⁶⁵
▲이용기⁶⁶ ▲이재철⁷² ▲이종용⁶² ▲이준근⁶⁶
▲장철준⁷⁷ ▲정현진⁷⁵ ▲정형배⁶⁰ ▲조정식⁶⁹
▲조남성⁷⁵ ▲조용현⁶⁶ ▲조치현⁶² ▲최창욱⁷²
▲허국환⁶¹ ▲한의현⁶⁴ ▲한희영⁶⁴ ▲함규중⁶⁹
▲홍사희⁶¹ ▲황정길⁶⁶

◇獸醫科大學

▲강부현⁷⁶ ▲강상구⁶⁰ ▲강운형⁶⁷ ▲구연강⁶⁶
▲권명욱⁶² ▲권혁룡⁶⁶ ▲김계방⁶⁵ ▲김기홍⁶⁹
▲김남식⁶⁰ ▲김영훈⁶⁵ ▲김원선⁶³ ▲김종택⁷⁶
▲김창수⁶⁶ ▲남기용⁶¹ ▲명상돈⁷⁸ ▲민호식⁶³
▲박병식⁶¹ ▲박영춘⁶⁵ ▲박진일⁶⁴ ▲박원원⁶¹
▲변광복⁶⁶ ▲변승호⁶⁰ ▲손태영⁶⁴ ▲송영길⁶¹
▲신현덕⁶⁴ ▲유기승⁶⁰ ▲유희민⁷⁵ ▲윤화영⁶³
▲이동원⁷⁷ ▲이성환⁶⁰ ▲이종경⁷⁹ ▲이종후⁵⁷
▲정동희⁶³ ▲정자영⁶⁰ ▲정진희⁶⁵ ▲최병조⁶⁰
▲한정희⁶⁴ ▲한정희⁶³

◇藥學大學

▲강창율⁷⁷ ▲김경희⁶⁸ ▲김광규⁶⁸ ▲김득구⁶²
▲김성모⁷⁹ ▲김성오⁸¹ ▲김수경⁶⁴ ▲김은영⁶³
▲김재곤⁶⁵ ▲김재원⁶² ▲김희배⁶⁶ ▲나혜연⁷⁶
▲남기혁⁶⁵ ▲박기숙⁶⁰ ▲박명식⁶² ▲박성희⁶⁸
▲박정희⁶⁵ ▲박종공⁶⁹ ▲박현원⁶⁰ ▲배운상⁶⁵
▲서원교⁶⁴ ▲서재균⁶³ ▲송진홍⁶⁵ ▲심성화⁶⁵
▲심응기⁶⁵ ▲안구원⁶⁵ ▲양승국⁶⁷ ▲우숙희⁶⁴
▲이갑희⁶⁷ ▲이길웅⁶⁶ ▲이병국⁶⁹ ▲이병규⁶⁷
▲이보경⁶⁶ ▲이삼수⁶⁴ ▲이숙연⁶⁶ ▲이오직⁶⁴
▲이정규⁶⁴ ▲이해빈⁶³ ▲이형연⁶⁶ ▲임동수⁷⁴
▲임재원⁷¹ ▲장수자⁶⁹ ▲장정일⁷⁰ ▲정만익⁶¹
▲주 청⁶⁶ ▲최진근⁶¹ ▲최형식⁷⁶ ▲한덕환⁵⁹
▲한병훈⁶⁵ ▲홍순철⁶¹ ▲홍옥선⁶⁹ ▲황봉자⁶⁶

◇音樂大學

▲강기웅⁷³ ▲강덕원⁷³ ▲공경란⁷⁶ ▲권오환⁶⁵
▲가주희⁶⁸ ▲김광근⁶³ ▲김동신⁶⁰ ▲김명주⁷⁰
▲김무영⁶⁸ ▲김민숙⁷⁶ ▲김병준⁷³ ▲김상숙⁶⁸
▲김선숙⁶⁶ ▲김선희⁶⁵ ▲김영희⁶⁸ ▲김인영⁶⁴
▲김정규⁶⁰ ▲김주현⁶¹ ▲김철희⁷⁷ ▲김현숙⁶⁸
▲김희숙⁶⁰ ▲김희자⁶⁹ ▲문용숙⁷⁹ ▲박미정⁷⁰
▲박석철⁷⁷ ▲박세경⁶³ ▲박정순⁶⁰ ▲박희명⁶⁵
▲반소영⁶⁰ ▲변종혁⁶⁵ ▲서혜영⁶⁰ ▲송원숙⁶⁰
▲송혜경⁷⁰ ▲신상호⁷⁴ ▲안진선⁶⁰ ▲용환선⁷³
▲원이경⁶¹ ▲유현아⁶⁵ ▲이명숙⁶³ ▲이미자⁶⁶
▲이보나⁶⁸ ▲이서현⁶⁶ ▲이소영⁶¹ ▲이유희⁷⁸
▲이재경⁷⁷ ▲이창수⁷¹ ▲이춘원⁷³ ▲임동창⁷⁰
▲임명진⁷² ▲장영애⁶⁴ ▲전서영⁷⁵ ▲전영혜⁶⁷
▲정경화⁷⁰ ▲정대봉⁶⁰ ▲정홍자⁶⁵ ▲정희숙⁷¹
▲지명진⁷³ ▲채완병⁶⁴ ▲최사나⁶⁰ ▲최은미⁶⁸
▲최재원⁶⁰ ▲추승욱⁷² ▲형진미⁶³ ▲황병훈⁷⁵
▲황현정⁷⁰

◇醫科大學

▲강경훈⁶⁸ ▲강사웅⁶⁴ ▲강원기⁶³ ▲강일권⁶⁸
▲강진국⁶³ ▲계수덕⁶⁴ ▲고재경⁶⁰ ▲구본술⁶⁰
▲권병현⁶¹ ▲금인섭⁶⁴ ▲김구수⁷⁷ ▲김규태⁶³
▲김기락⁷⁶ ▲김덕호⁴¹ ▲김동수⁶⁸ ▲김순영⁶⁹
▲김승철⁶⁰ ▲김연우⁶⁸ ▲김재문⁶⁴ ▲김재승⁶⁹
▲김정진⁶⁰ ▲김종만⁷⁴ ▲김철우⁷⁶ ▲김철웅⁷⁸
▲김필수⁶² ▲김학현⁶⁹ ▲김한수⁶⁸ ▲김호균⁷⁰
▲김희섭⁶⁴ ▲노국룡⁶⁵ ▲노태성⁶¹ ▲류백렬⁶³
▲문채구⁶⁵ ▲문형조⁶¹ ▲민경안⁶⁵ ▲박경덕⁶⁸
▲박범수⁶⁰ ▲박우성⁶³ ▲박정규⁷⁵ ▲박정식⁷⁵
▲박홍식⁶⁰ ▲변창제⁷⁸ ▲서창석⁶⁵ ▲석세일⁶³
▲석성우⁷² ▲소순호⁶⁴ ▲송영주⁶⁰ ▲신동주⁶³
▲신영민⁷⁸ ▲신준우⁶⁴ ▲양만규⁶⁴ ▲유영진⁶⁶
▲유철희⁷⁰ ▲윤경애⁶⁵ ▲이광우⁷⁶ ▲이광우⁷⁶
▲이규주⁶⁰ ▲이승철⁶⁵ ▲이용석⁶⁴ ▲이원로⁶²
▲이재우⁶⁵ ▲이종성⁶⁰ ▲이진성⁶⁷ ▲이해욱⁶¹
▲임수덕⁶⁵ ▲임재선⁶⁴ ▲임현규⁶⁵ ▲임현규⁶⁵
▲임현명⁶⁰ ▲전병훈⁶² ▲전은석⁶³ ▲전호성⁶²
▲정광원⁶⁰ ▲정남화⁶² ▲정병철⁶⁰ ▲정용인⁷⁴
▲정용진⁶⁰ ▲조병주⁶² ▲조일균⁶¹ ▲주권량⁷⁶
▲주원덕⁶⁵ ▲한경일⁶⁸ ▲한의수⁶⁴ ▲한재진⁶⁰
▲황유성⁶⁸

◇齒科大學

▲강순철⁶¹ ▲강승선⁶⁴ ▲공민석⁷⁶ ▲권영오⁶⁵
▲권영원⁶⁰ ▲김각균⁷⁰ ▲김건모⁷² ▲김광희⁶⁵
▲김기성⁶⁸ ▲김두현⁶⁵ ▲김명찬⁶¹ ▲김미자⁶⁵
▲김선영⁶³ ▲김수남⁶⁶ ▲김영수⁶¹ ▲김오석⁷⁶
▲김용남⁷⁴ ▲김우종⁷¹ ▲김원범⁶⁵ ▲김인영⁷⁶
▲김인철⁶⁴ ▲김정희⁶⁰ ▲김태준⁶¹ ▲김형식⁶⁵
▲류경희⁶⁹ ▲문민연⁶² ▲박두환⁶⁷ ▲박영규⁶⁷
▲백철호⁶³ ▲변오영⁶⁰ ▲서명우⁶⁹ ▲석광덕⁷⁹
▲신승철⁷³ ▲신용진⁶⁰ ▲안성모⁷⁴ ▲양명운⁶⁹
▲염보용⁶¹ ▲원도종⁶⁰ ▲유하식⁶⁹ ▲윤영준⁶⁶
▲이경수⁷⁹ ▲이상용⁶⁰ ▲이석형⁶² ▲이석현⁶⁸
▲이선복⁷⁷ ▲이영욱⁶⁴ ▲이원수⁶⁷ ▲이재성⁶⁶
▲이종훈⁶¹ ▲이철민⁶⁰ ▲이희주⁷³ ▲임택재⁶¹
▲임형순⁷⁰ ▲장기택⁶⁰ ▲장은하⁶⁸ ▲전근태⁶⁷
▲정만영⁶⁵ ▲정유철⁶⁴ ▲진우정⁷⁸ ▲채운필⁶⁶
▲최승훈⁶⁵ ▲한성협⁶⁷ ▲한영복⁶² ▲홍지원⁶⁹
▲황 준⁶⁹

◇大學院

▲이지수⁶⁸ ▲김길곤⁷⁷ ▲김문한⁶² ▲김복영⁷²
▲김성간⁷⁶ ▲김형욱⁶⁹ ▲문용자⁷³ ▲문희수⁶⁴
▲민경식⁷⁹ ▲박노균⁶² ▲박복민⁷¹ ▲박용수⁶⁸
▲박대균⁶² ▲백승용⁶³ ▲서준섭⁷¹ ▲손동익⁶⁷
▲손병환⁶⁰ ▲송석홍⁶⁵ ▲오형재⁶⁷ ▲이정애⁶⁹
▲이종호⁶² ▲장익순⁶⁷ ▲조태승⁶⁷ ▲조한욱⁶¹
▲한성룡⁶⁵ ▲현재선⁶⁸

◇經營大學院

▲강현호⁷² ▲고희수⁷⁵ ▲김덕균⁶⁷ ▲박원동⁷⁴
▲송효순⁶⁷ ▲양관후⁷² ▲이강선⁷²

◇教育大學院

▲박광희⁶⁶

◇保健大學院

▲구군회⁶⁰ ▲김종석⁶⁰ ▲민정기⁶¹ ▲신학균⁶¹
▲이경연⁷³ ▲이영환⁷⁰ ▲이희태⁶⁷ ▲임창희⁶²
▲주수영⁷³ ▲최환영⁶⁴

◇新聞大學院

▲김유원⁷⁴ ▲김희옥⁷⁶ ▲이종화⁷¹ ▲황우권⁷²

◇行政大學院

▲강계두⁶⁴ ▲김동수⁶³ ▲김재팔⁶⁴ ▲노화준⁶⁹
▲배 청⁷⁰ ▲유상철⁷² ▲이준우⁷³ ▲정동준⁶⁷
▲허성두⁷³ ▲허필국⁷¹ ▲현경병⁶⁷ ▲홍석철⁶⁴

◇環境大學院

▲권용수⁷⁶ ▲김경운⁶⁵ ▲김기욱⁷³ ▲김태경⁶⁷
▲박광재⁷⁰ ▲박종갑⁷⁷ ▲이만형⁶³ ▲이